

2022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 탐방

민주야 여행가자!

탐방보고
자료집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

contents

01

민주야 여행가좌

(이상윤, 전홍근, 황상진)
카톨릭(Catholic)
민주화 갈망(渴望!)
07

02

기억하고 실천하는 대학생

(김인혁, 김지민, 하수민)
학생들의 나라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학생 민주화 운동
27

03

시민(市民)

(김동주, 변수아, 박상진)
민주주의가 당연하지 않았던
시절부터 국가의 주인인
시민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39

04

어울림

(이충현, 임다혜, 정태운)
비석 하나면 다냐
51

05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위한 청년 유람단

(백승훈, 김민규, 김대운)
주변의 역사를 기억하는 일
59

06

내일의목소리

(주강혁, 한민, 현한나)
L의 운동화 우리의 운동화
65

07

기행

(이다정, 이민규, 오정근)
잊혀진 청년들
81

08

숨민다 (숨참고민주다이브)

(김정원, 박영현, 안혜민)
민주통일을 위한 교육의 첫 걸음
93

09

봄봄

(정가영, 유현정, 김채림)
독립 77주년 기념,
일제강점기·독립운동 속
민주화 운동 바로 알기
101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인천광역시 '인천민주화운동기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단체로,
 인천광역시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된 단체입니다.



주요사업



사료실 운영사업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수집과 보존,
 전시, 편찬 사업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사업

인천민주화운동 역사를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으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민주화운동 계승과 희생자 추모 사업



민주역량 강화사업

민주시민교육, 청소년, 청년
 민주화 역량 강화사업

현장탐방 일정표



참가신청 7월 29일



보고서제출 10월 11일



발표회 10월 27일



시상식 11월 8일

안내

인천민주화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기록을 기증받습니다.

문건 사료(간행물, 일기, 메모, 재판자료...), 박물관사료(현수막, 포스터, 의상, 걸개그림...)
 멀티미디어사료(비디오, 사진, 슬라이드 필름...), 구술사료(인터뷰, 사건 구술 기록...),
 도서류(민주화운동 단체에서 생산된 도서 및 정기간행물)

민주야 여행가좌

이상윤

전흥근

황상진

카톨릭(Catholic) 민주화 갈망(渴望)

답사지 선정 이유

우리는 답사 예시에 나와있는 곳 중에 처음부터 성당들에 눈이 갔다. 우리 조원 모두 기독교를 다니고 있었으며 기독교와 다르다면 다르다고 볼 수 있고 같다면 같다 볼 수 있는 카톨릭을 보고 흥미를 느꼈다. 그 와중에 카톨릭과 민주화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성당 2곳과 근처에 있는 서대문형무소를 답사해봄으로써 궁금증을 풀고 카톨릭의 대한 역사와 민주화 운동에 연결고리를 찾는데 주목했다.

답사 지역



서대문 형무소



답동 성당



명동 성당

서대문 형무소



을사조약 이후 국권 침탈을 시작하면서 일제가 만든 시설로, 1908년 경성 감옥으로 만들어 1912년 서대문감옥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정해진 법과 규율을 어기면 그 벌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만, 일제 때 정한 법과 규율은 그들이 조선을 다스리기 위해 만든 것으로, 독립을 위해 법을 어기며 저항했던 조선사람들을 수용할 큰 교도소가 필요했던 것이다. 1987년 의왕으로 이전하기까지 사용되었으며 안으로 들어서면 일제 때 지어진 옥사와 작업장, 전시관 등을 둘러볼 수 있다. 형무소의 담장과 문은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한다.

■ 서대문형무소의 간단한 역사

서대문형무소는 대한제국 말에 일제의 강압으로 감옥이 지어져 80여 년 동안 우리 근·현대사 격동기의 수난과 민족의 한이 서려있는 역사의 현장이자 우리 민족의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대표적인 탄압기관이었다. 1908년 10월 21일에 경성감옥이란 이름으로 문을 연 뒤 일제에게 우리의 국권이 빼앗기자 이에 항거하는 민족독립운동이 전국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일제는 수많은 우리의 애국지사들을 체포 투옥시켰다. 수용인원이 증가하자 그들은 마포 공덕동에 또 다른 감옥을 지었고, 이 때문에 1912년 9월 3일에 서대문감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름의 변화만큼이나 많은 민족수난의 역사를 간직한 채 1992년 8월15일에 현재의 '서대문독립공원'으로 개원하였다.



■ 서대문 형무소 답사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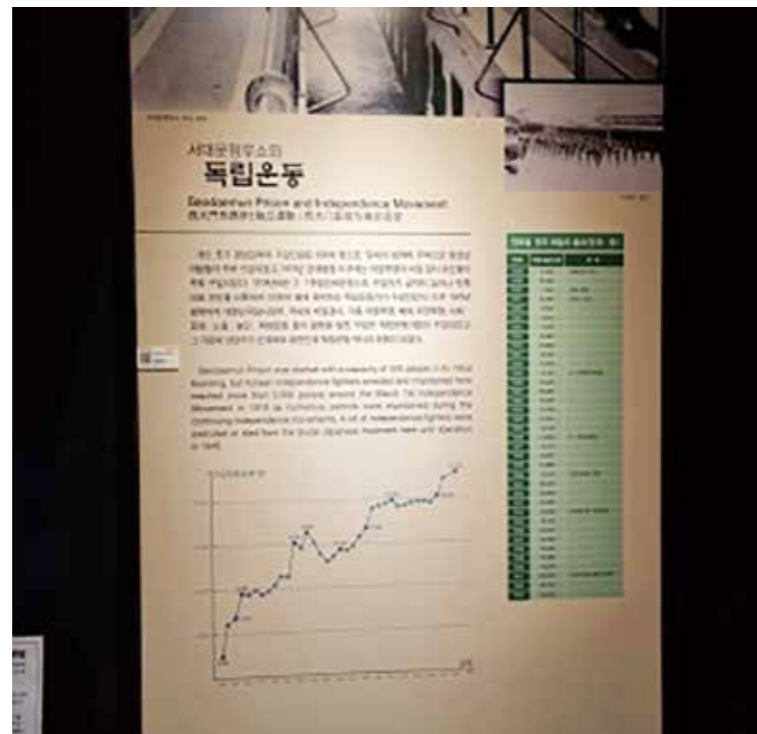
처음 들어갈 때 입장료를 결제했다. 생각보다 비싼 가격은 아니었다. 우리는 성인 3명이기에 9천원을 결제하고 입장하였다. 군시절에 한번 와볼만도 했었는데 그 때는 이런 곳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서 아쉬워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제공한 템플릿. 이 순서에 맞춰 관람을 진행하되 우리는 독립운동보단 민주주의에 초점을 두고 사진들을 촬영했다.



처음 간 곳은 전시관(보안과 청사)이었다.



전시관에는 독립운동 위주로 나열되어있었다. 이것 말고는 연표들이 많은데 이 사진이 타임라인 순으로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었다.



전시관 한 방을 차지하는 사진이다. 수 많은 독립운동가들에 사진들로 이루어져있다.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 했던 분들이 우리를 위해 이리도 많이 희생했다는걸 몰랐던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중앙사를 통해 실제 감옥이었던 옥사들을 살펴볼 것이다.



실제 수감 되었던 감옥이다.

방 안을 찍고 싶었으나 열려있는 방은 한정적이었다.

수감자들이 감방과 감방 사이의 벽을 두드려 정보를 주고받던 암호 통신법이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순서대로 두드려 글자를 조합하는 방식이다. 망우리 우편 수송차 습격 사건으로 8년형을 받고 갇혀 있던 공명 단원 김정련이 1932년 서대문형무소에 잡혀온 안창호에게 타벽통보법을 알려 주다가 순찰하던 간수에게 발각되자, '똥통'을 뒤집어엎고 소란을 피워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는 일화가 있다.





사진에서처럼 방 안에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건이 나열되어있다.



감방 내에는 민주화운동을 하신 많은 분들이 있었다. 그 분들에 사진을 다 담고 싶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분들을 사진에 담아보았다.

아까 독립운동가분들 사진이 있던 방처럼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에 사진으로 이루어진 방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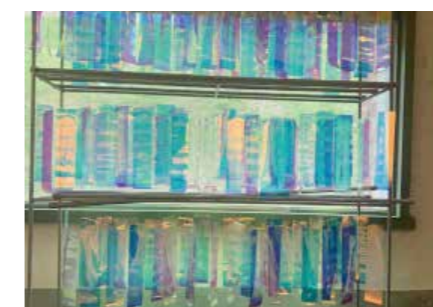
“김광환님, 국민정신, 영광입니다. 사실 저는 올린 차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 겹친 행적이지 않는데도 올렸어 아무것도 안한 거였지만 자제. 이 젊은 마음을 기꺼이 세팅 기꺼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을 해 보겠습니다.”
- 1974년 서울구경당시 (김광환의 전술) -

이렇게 올해의 민주 지사분들이 있다. 물론 다 훌륭한 분들인데건 변함없는 사실이다.

기억이라는 코너(?)도 있다.



사진 상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많은 분들이 이름이 아름다운 형태로 담겨져 있다. 이건 꼭 가서 보는것을 추천하고 싶다.



기억나무 민청학련 사진 관련자 155명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한 설치물이다.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듯이 그들이 이름이 적힌 일들은 햇살을 받아 전시장에 무지개 빛으로 물들었다.

명동 성당



명동성당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 대성당을 줄인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교회 공동체가 처음 탄생한 곳으로, 초창기 천주교가 박해받던 시절 순교한 사람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다. 명동성당 건물은 고딕 양식으로 1898년에 완공되었다. 명동성당은 1968년에 김수환 추기경이 교구장으로 취임한 후 1970년대부터 '민주화의 성지가 되었다. 1974년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하여 지학순 주교가 중앙정보부에 체포되자, 명동성당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조직되었다. 1976년에는 명동성당에서 김대중, 문익환, 함석헌 등이 박정희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는 김수환 추기경이 시국 담화를 발표했다. 1987년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김승훈 신부는 5·18 민주화 운동 7주기 추모 미사에서 박종철 고문치사와 관련된 경찰의 은폐 조작을 폭로했습니다. 그해 6월 10일, 신세계 백화점 앞 로터리와 퇴계로, 명동 주변의 거리에서 치열한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경찰에 밀리던 시위대는 명동성당으로 들어왔다. 이후 6월 15일 까지 명동성당에서 농성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전 국민의 민주화 열망이 뜨겁게 타올라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했다. 1990년대에는 명동성당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외국인 노동자 문제, 공안 정치를 비판하는 시민운동의 공간이 되었다. 명동성당은 단순한 종교 건물이나 관광 명소가 아니다. 박해를 이겨 낸 한국 천주교회의 상징, 민주화 운동의 성지로서 의미를 되새겨 보는 공간이다.

많은 사진을 찍고 답사를 진행하고 싶었으나 안에서 미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사진촬영이 금지되어있어서 자료 확보에 힘들었다. 그래서 명동 성당은 역사적 사건 소개 위주로 진행할것이다

■ 명동 3·1 사건

'명동 3·1 사건'은 1970년대의 명동대성당에서 벌어진 민주화운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유신헌정이 시작된 후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키며 박정희 정권에 막대한 타격을 가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1974년 1월 8일에 선포된 긴급조치 1, 2호에 이어 1975년 5월 13일에는 서울 퍼런 긴급조치가 9호까지 선포되어 무거운 침묵이 강요되던 중, 3·1운동의 57주기를 맞는 1976년 3월 1일에 3·1절 기념미사와 가톨릭과 개신교의 합동 기도회가 명동대성당에서 열렸다.

이 기도회에서 이우정 교수(개신교 교회여성연합회 회장)가 윤보선, 김대중, 함석헌, 정일형, 김관석, 윤반웅, 문동환, 이문영, 안병무, 서남동, 이우정, 은명기 씨 등 12명이 서명한 '민주구국선언'을 낭독했던 것이다. 그 선언문의 3대 주제는 "(1) 이 나라는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2) 경제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3) 민족통일은 오늘이 겨레가 짊어진 지상의 과업이다"였다. 이로써 박정희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며 긴급조치 9호가 강요했던 침묵을 깨뜨려 버렸던 것이다. 이 사건 관련 피고인은 모두 18명으로, 그 중 11명이 구속, 7명은 불구속되었는데, 이들 모두가 크리스천이었고, 개신교목사가 여섯, 가톨릭 신부가 다섯으로 성직자만 11명이었다.

이 기념미사가 평온한 가운데 끝난 후 그 다음날부터 관련자들이 연이어 연행되었고, 3월 10일에 서울 지방검찰청 서정각 검사장은, 종교 행사를 방해한 '일부 재야인사들의 정부전복 선동사건'이 발생하여 관련자 20여 명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농성이나 시위없이 끝난 미사를 '정부전복 선동사건'이라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든 것이다. 이 사건의 의미를 되새겨보자.



첫째, 이 사건은 정부측과 교회 사이의 이념적 갈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남미의 군사정권 하에서도 보여졌듯이, 군부권 위 주의정권은 교회의 이러한 개입에 대해 “교회 성직자들이 정치에 간섭 (meddling in politics) 하고 있으며,” “교회의 하층부에는 맑스주의자들이 침투(infiltration)해 있어 반란을 도모하는 반체제인사들의 도피처로 이용된다”고 여기는데, 이번 사례도 이와 다르지 않다. 반면, 기소된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은 만1년에 걸친 재판과정 가운데 법정 증언을 통해 그들의 행동이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교회 본연의 ‘예언자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었음을 항변했다.

둘째, 이 사건은 모든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묵살하려던 서슬퍼런 긴급조치 9호에 교회가 앞서서 정면으로 도전했던 점, 선언문 발표 후의 정부의 반항과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부당하고 가혹하기에 교회 역시도 계속 강경하게 대응했다는 점에서, 학생시위가 인권운동에 다시 불을 붙이면서 부활하고, 체포된 양심수 및 정치범들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양심수 석방운동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더 나아가 이 선언은 유신반대운동을 박정희 정권 퇴진운동으로까지 상승시켰던 것이다.

셋째, 이 사건은 그즈음에 새로 발달하고 있던 재야운동에 구심점을 마련해 주었다. 이 사건에는 신·구교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망과 존경을 받던 해직교수들, 그리고 김대중, 윤보선 등의 정상급 정치지도자들도 포함되었고, 이들이 그 이후도 계속 유신정권에 대항하는 연합세력의 중심적 역할을 했다.

넷째, 이 사건은 국내외에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국내의 신·구교 교회는 이 사건을 수많은 성명서, 질문서, 결의문, 공개서한, 진정서, 담화문 등을 발표하여 국내외에 알렸고, 세계교회협의회 등의 각국의 기독교 기관들을 통해서도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다섯째, 이 사건은 그것이 3·1절을 계기로 감행되었다는 점에서 또다른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즉, 제2의 3·1운동을 지향하면서, 3·1운동이 식민지배의 종식을 요구했듯이, 이 선언은 독재정권의 퇴진을 요구한 선언이었다. 다만 이 선언이 반(反)유신운동을 3·1운동과 같이 거족적으로 촉각 유발하지는 못했을 뿐이다. 끝으로, 민주구국선언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서야 하고, 경제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민족통일은 오늘 우리 겨레가 짊어진 지상의 과업이라는 이 선언문의 3대 주제는,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명동 성당 농성

‘1987년 6월10일 서울 명동에서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경찰과 밀고 밀리는 시위가 치열하게 벌어졌다. 대치선은 명동 입구 유네스코 건물 앞이었다. 이곳에서 학생과 시민 500여명이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다가 최루탄에 쫓겨 차츰 로얄호텔까지 밀렸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성당 안마당으로 들어갔다.

밤 11시쯤부터 근처 퇴계로·을지로·종로 일대에서 접전을 벌이던 시위대 일부가 성당 구내로 들어와 합류하기 시작했다. 잠시 숨을 돌린 이들은 모인 김에 내쳐 밖으로 진출해 마지막 시위를 감행했다. 이들 중에는 귀가하려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경찰이 뜻밖에도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하고 최루탄을 난사했다. 밤중이라 최루탄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시위대는 자구책으로 중앙극장과 로얄호텔 앞에 차량 차단기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3개조로 나누어 이튿날 새벽 3시까지 야간 투석전으로 맞섰다. 아무도 잠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



1987년 6월 13일 서울명동성당에서 농성 3일째를 맞은 시민과 대학생들이 반독재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사전 계획된 투쟁이 아니었으므로 지도부가 있을 리 만무했다. 이들은 새벽 전투가 끝난 뒤 인원을 점검했다. 대학생 500명, 노동자 26명, 도시빈민 농성자 80명, 일반 시민 150명으로 집계됐다. 대학생 4명을 포함한 부문별 대표 7명으로 임시지도부를 구성했다.

그리고 곧바로 농성 지속 여부를 놓고 토론에 들어갔다. ‘투쟁 열기를 명동으로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 국민과 함께할 방법을 찾자는 해산론과 ‘6·10 국민대회 이후의 지속투쟁본부로 명동성당을 거점화해야 한다’는 계속투쟁론이 팽팽히 맞섰다. 두 그룹은 해산이든 지속투쟁이든, 일단 12일 정오까지는 농성을 계속한다는 데 합의했다.

서울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서대협)의 일부 간부들이 농성장에 있었지만 강경투쟁을 주장하는 시민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아침이 되자 농성대는 성당측의 항의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측의 해산 종용에 부딪혔다. 이제 12일 정오 해산은 기정사실화됐다. 11일 정오, 하는 수 없이 농성대는 임시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산 절차와 방법을 논의했다. 성당측은 오후 2시를 기해 농성자들이 철수하는 것으로 경찰에 이미 통보한 상태였다. 그런데 토론이 한창 진행 중인데 경찰이 성당 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무지막지하게 성당 안으로 진입해 들어왔다. 부상자가 속출했다.

회의 중 급보를 접한 지도부가 밖으로 뛰쳐나왔다.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린 최루가스로 인해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때 명동성당 주임신부 김병도가 학생들이 쓰는 핸드마이크를 들고 경찰에게 다가가 격렬히 항의했다. 경찰이 일단 정문 밖으로 철수하자 농성대는 피흘리며 쓰러진 부상자를 구조하는 일부터 서둘렀다. 문화관 화장실 앞에 자리를 깔고 간호대 출신들을 중심으로 응급처치조를 구성했다. 이들은 광목 완장에 붉은 색 테이프로 십자가를 만들어 붙인 뒤 팔에 둘렀다. 그러나 의료품이 없었다. 응급처치조는 정문밖 경찰을 향해 “전쟁 중에도 적국의 부상자를 치료해주는 법인데, 의약품을 주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외쳤다.

해산 예정 시각이 다가오면서 농성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러나 그 해법은 오히려 밖에서 제공해 주었다. 12일 새벽, 성당의 주인인 서울교구청 신부 40여 명이 ‘도덕성과 정통성을 잃은 현 정권에 대한 투쟁은 정당하며 사제의 양심으로 농성대를 끝까지 보호할 것을 성명으로 밝히고 나섰다. 백만 원군이였다. 더군다나 그날 저녁에는 서울지역의 사제와 수녀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구국 미사가 예정된 터였다. 그런 가운데 이날 아침, 서울시경국장 은 명동성당 농성자들이 성당을 좌경공산혁명의 ‘해방구처럼 만들었다고 비난하면서 이들을 ‘체제전복적인 국기문란 행위자로 엄벌하겠다고 특별담화로 경고했다.

낮 12시가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성당 밖으로부터 격려금과 지원물품이 산더미처럼 들이닥쳤다. 정부의 ‘용공 타령이 오히려 국민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한 결과였다. 계속되는 시위로 평소에도 많은 피해를 보았을 근처 가게 주인들과 성당 옆 계성여고 학생들의 눈물겨운 사연이 성금 봉투 속에서 쏟아져 나왔다. 계성여고생들은 점심 도시락을 걸어 농성대에 전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농성대에게는 여간 큰 힘이 아니었다.

언론의 집중 보도가 이어지면서 수천명의 전경에 에워싸인 명동 일대는 적에 싸인 채 전 국민이 숨죽여 주시하는 지역으로 급부상했다. 자연스레 12일 낮 12시는 아무런 일도 없이 지나갔고 농성은 계속 이어졌다.

이날 자정 무렵, 기동경찰 1,000여명이 배치되면서 잠시 비상계엄설과 강제진압설로 긴장감이 돌았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농성대는 해산 여부를 놓고 다시 토론에 들어갔다. 그러나 새벽에 성당 후문에 공수부대가 집결했다는 소문과 함께 계엄설이 다시 흘러나왔다. ‘비밀통로를 알고 있으니 살고 싶은 사람은 모두 빠져나가라’는 한 시민의 애원에도 움직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농성대는 이를 프락치를 이용한 경찰의 심리전으로 판단하고 이후부터 비표를 배포해 출입 통제에 나섰다.

해산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토요일인 13일 아침이 밝았다. 농성대는 최루탄 파편과 돌맹이로 뒤덮인 성당 구내를 말끔히 청소하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바리케이드도 치웠다.

이날부터 근처 사무실의 회사원들과 시민들의 반응이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농성대가 그을린 얼굴과 남루한 행색으로 대오를 지어 명동성당 언덕에 올라서면 근처 사무실의 창문이 열리면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들이 지지의 의미로 던지는 두루마리 휴지가 하얀 곡선을 그리며 무수히 낙하했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넥타이 부대는 정문 앞에서 같이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5공이 그토록 주장하던 ‘침묵하는 다수가 정치적 입장을 확연히 드러낸 것이다. 이 넥타이 부대는 이날 이후 6월항쟁을 이끄는 중심세력의 하나로 떠오르게 된다.

그러나 농성이 4일째를 넘기면서 농성대는 극도로 지쳐갔다. 농성장 상황도 극히 열악했다. 숙소인 성당 내 문화관의 정원이 200여명에 불과해 남자들 중에는 외부 잔디밭 등에서 자는 등 마는 등 하는 이가 많았다. 지도부는 조를 짜서 경계조가 구호를 외치거나 시위에 나서면 다른 조는 쉬게 하는 등 세심하게 배려했지만, 서서히 체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나태와 일체의 개인주의를 배격하고, 공공기물을 소중히 쓰며, 시민들이 제공하는 음식을 감사히 먹고, 기필코 민주화를 쟁취한다는 신념으로 투쟁에 임한다는 등의 7가지 행동수칙을 지키면서 ‘주투야토’(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토론함)를 해온 결과였다.

14일은 일요일이었으므로 신도와 시민들이 자유롭게 성당을 출입할 수 있었다. 적지 않은 부모들이 자식을 데리러 성당으로 찾아왔으나 돌아가는 사람은 없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말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경우도 있었다. 성당 입구 광장은 시민대토론회장으로 변했다. 오후 6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시민들은 자리를 뜰 줄 몰랐다.

신부 함세웅은 추기경 김수환의 지시에 따라 안기부 등 당국자들과 물밑 대화를 계속했다. 그는 일찍이 서울교구 신부들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경찰의 강경진압 움직임을 잠재운 터였다. 그는 평화적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하지만 15일까지는 안전을 보장받았으나 농성을 해산하지 않으면 강경진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전두환의 뜻을 안기부 차장으로부터 전해들었다.

농성대 내부의 견해도 팽팽하게 맞섰다. 이때 이미 국본은 18일 '최루탄 추방대회'를 열어 또 한번의 대규모 반격을 퍼기로 발표해 놓은 상태였다. 15일 새벽 2시부터 철야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결국 거수 표결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 3차에 걸친 투표 결과 119대 94로 해산이 결정됐다. 강경투쟁을 고수한응급처치조와 부상자들이 통곡하며 울분을 토하는 가운데 김수환이 들어왔다. 김수환은 농성대와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15일 오전 10시, 농성대는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문화관을 나섰다. 구속된 한명도 없이 5박6일의 투쟁을 마감한 것이다. 6·10 대투쟁의 불씨를 꺼안고 옛새동안 벌인 이 농성투쟁은 이후의 6·18과 6·26 대폭발로 가는 징검다리이자, 민주주의의 폭풍을 일으킨 진앙의 구실을 했다. 한 시민이 성당에 떨어뜨리고 간, 비닐 봉투에 성금과 함께 들어 있었던 쪽지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온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했다.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진정 우리의 희망이라고.”

■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명동 성당

명동성당은 신앙 자유의 상징으로서, 일제와 6.25전쟁의 수난을 거쳐 독재 정권에 맞서 민족의 양심과 지성을 지켜온 민주화의 성지로서 자리매김하였다. 가톨릭교회와 국가 사이의 갈등은 유신독재시기인 1974년부터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1974년은 '지학순(池學淳, 1921년~1993년) 주교 사건'과 '정의구현사제단'의 결성이 있었던 시점이었다. '지학순 주교 사건'은 1974년 7월 원주교구의 지학순 주교가 '민청학련' 학생들을 도와주었다는 혐의로 중앙 정보부에 의해 체포된 사건이다.



박종철 명동성당 추모식(1987)

명동대성당이 주축이 되어 벌였던 민주화·인권운동은 무척 다양한 영역에 걸쳐 벌어졌는데, 지학순 주교 사건을 계기로 1978년의 '동일방직 사건'을 비롯한 노동운동, 1979년의 '오원춘 사건'을 비롯한 농민운동, 1978년의 '7·6 사건'을 비롯한 교권수호활동, 1974년의 '민주회 북국민회의의 결성과 1976년의 '명동 3·1 사건'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1974년 10월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언론자 유화운동, 유신체제를 반국가적이고 부도덕한 것으로 비판했던 정의구현사제단의 여러 차례에 걸친 입장 표명, 양심수들을 옹호하는 인권운동을 벌였다.

1980년대 우리나라 민주화에 있어서 명동성당의 역할은 더욱 증폭되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벌어지자 김수환 추기경은 신자들에게 '광주항쟁'에 대해 특별기도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시국관련 담화문을 발표하였으며 명동대성당에서는 철야기도회가 열렸다.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의 피의자들을 피신시킨 이유로 최기식(崔基植) 신부가 구속되자 김수환(金壽煥, 1922-2009) 추기경은 1982년 4월 7일 명동성당에서 봉헌된 성유축성미사 중 강론을 통해, "최 신부의 행동은 가톨릭 사제로서 정당하고 합당한 행동"이라고 인정하였다. 1987년 5월 18일 김수환 추기경 집전으로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5·18 광주항쟁 희생자 추모미사'가 끝난 후, 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는 성명이 발표되었다. 당시 명동성당에서는 상계동 철거민들이 명동성당에서 집단 천막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6월 항쟁 도중 학생과 시민시위대의 '해방구' 역할을 하였다.



■ 답동 성당

1981년 9월 25일 사적 제287호로 지정되었다. 벽돌조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로 건축면적이 약 1,015㎡이다. 1890년대에 건축된, 한국 성당 중 가장 오래 된 서양식 근대 건축물 중 하나이다.

6·25전쟁 때 훼손된 부분은 모두 복원되었고, 1979년에는 창문에 스테인드글라스를 설치하는 등, 이 성당은 그 위용과 아름다움으로 개항장(開港場) 제물포(濟物浦) 시대부터 이 곳의 역사적인 건축물로 꼽혀왔으며, 인천 교구 내 102개 본당의 주교좌 성당이다.

성당 안으로 빛이 들어오고
양쪽으로 나 있는 유리창은
스테인드글라스로 장식되어 있고
제대 뒤편의 창도 삼색의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화사하게 빛에 왓지 모를 경건함이 느껴집니다.

기도를 하며 조용히 성가를 부르는
신도의 노랫소리와 성당의 분위기가 어우러져
오랜만에 종교적인 분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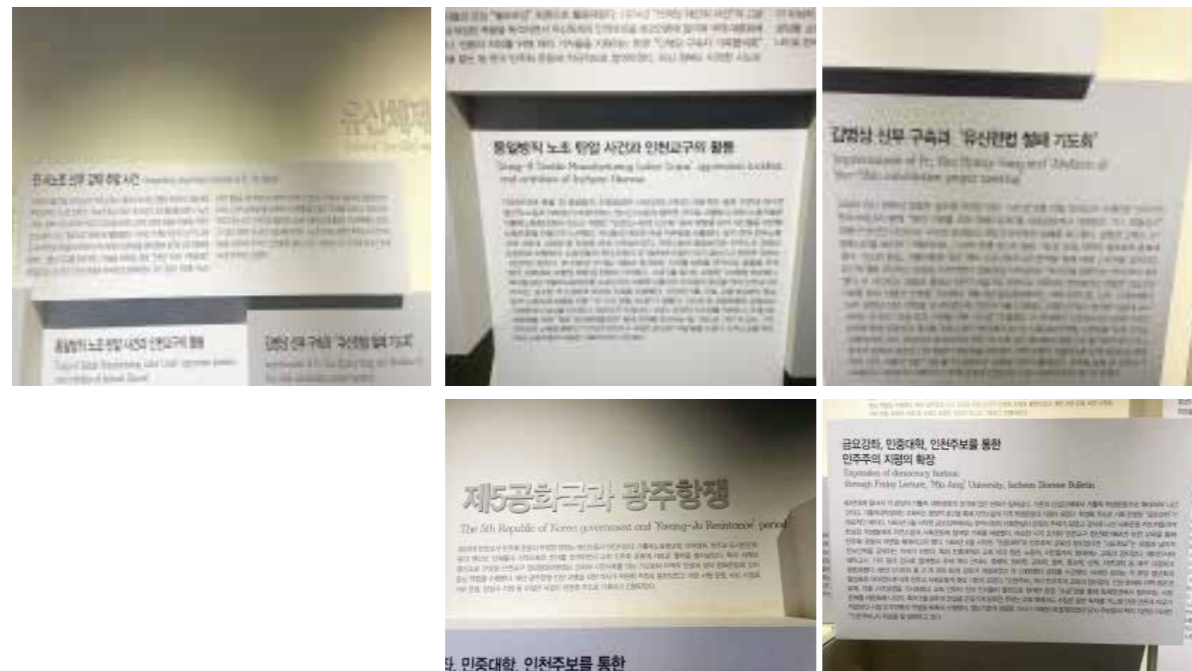
전시된 본 행렬을 십자가는 인천교구 주교좌 성당인 답동성당에서 사용하던것으로 교구 설정과 초대 교구장 창조하시고 때부터 시작해 민주화 운동 시기 선두에서 행렬을 이끌었던, 인천교구의 역사를 오롯이 함께 겪은 역사적 유물이다.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민주항쟁에 참여한 천주교 그 때 그 자리 그 사람들에게 뜨거운 외침을 기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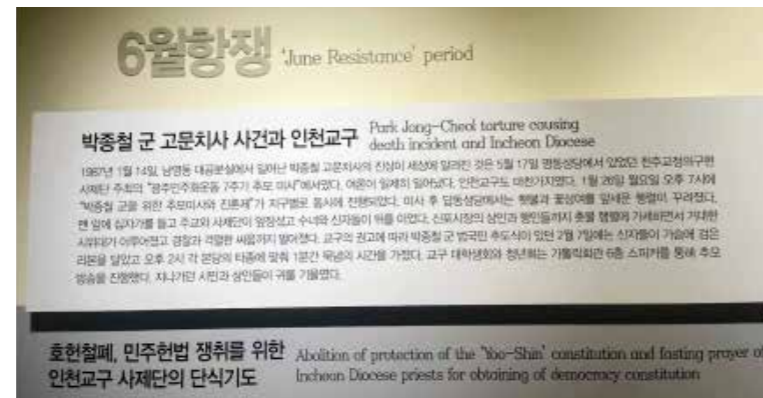
■ 종교 탄압 시대 종교의 자유를 위해 죽은 여러명의 선교사들

유신체제 시대에 민주화운동, 전 신통 신부 강제 추방 사건, 김병상 신부 구속과 '유신헌법 철폐 기도회', 동일방직 노조 탄압 사건과 인천교구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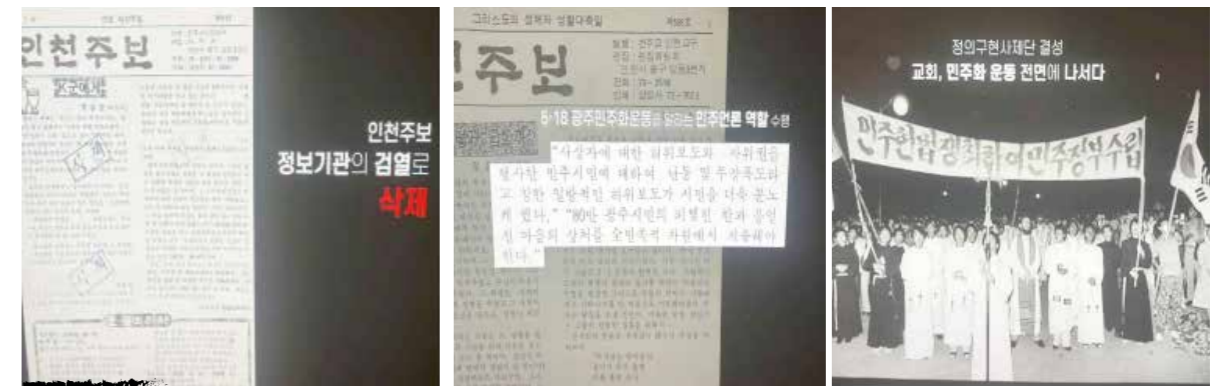


80년대 인천교구 민주화 운동의 뚜렷한 변화는 평신도들의 악진이었다. 가톨릭노동청년회, 대학생회, 천주교 도시빈민회 등의 평신도 단체들이 지역 사회와 연대를 모색하면서 교회 민주화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알리는 민주연론 역할 수행

1987년 1월 1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일어난 박종철 고문치사의 진상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5월 17일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주최의 “광주민주화운동 7주기 추모 미사”에서였다. 여론이 일제히 일어났다. 인천교구도 마찬가지였다. 1월 26일 월요일 오후 7시에 “박종철 군을 위한 추모미사와 진혼제”가 지구별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미사 후 답동성당에서는 햇불과 꽃상여를 앞세운 행렬이 꾸러졌다. 맨 앞에 십자가를 들고 주교와 사제단이 앞장섰고 수녀와 신자들이 뒤를 이었다.



정의구현사제단을 결성하면서 교회가 민주화 운동 전면에 나서는 사진(사진 오른쪽).

답사 후기 전홍근

명동 성당 성당의 웅장한 크기에 놀랐다. 성당에 방문하였을때는 미사가 진행중이었는데 그래서 안쪽을 그렇게 자세히 관찰하진 못하였다. 또한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있어서 성당의 모습을 많이 담지 못 한것이 아쉬웠다.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꼭 한번 방문해서 보았으면 좋겠다. 단순히 겉모습이 아름다운 성당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민주화의 거룩한 역사를 미리 공부하고 가면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서대문 형무소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곳이 처음 알았다. 우리나라 수도에 이렇게 큰 형무소가 있었다니 이번 계기가 아니었으면 아마 계속 몰랐을수도 있다. 처음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다. 군인은 할인을 해줬었는데 군인 시절에 한번 좀 들렀으면 더 좋았을꺼같다. 그렇게 입장을 하고 굉장히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 형무소였다. 형무소안에서는 관람 순서가 있었는데 그 순서를 따라 감상을 하다보면 일제강점기부터 민주화운동에 역사까지 모두 경험해볼 수 있다. 그리고 건물 안에는 그 당시에 상황을 자세히 묘사해냈고 우리가 아는 인물들을 제외하고도 민주화 운동이나 독립 운동 열사 같은 분들의 이름이 매우 많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제 한몸 불 살라가며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들이다. 또한 많은 실제 역사 자료들과 곳곳에 있는 빔 프로젝트로 볼 수있는 시청각 자료들이 많았다. 그리고 관람 마지막 순서에는 커다란 태극기가 있었다. 그걸 보면서 저 태극기 하나를 위해 싸워온 분들의 노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그렇기에 우린 더욱 역사를 공부해야하고 잊지 말아야한다. 그리 비싼 가격도 아니기에 서울에 오면 들려서 구경하는것도 추천하고 싶다.

답동 성당 성당이 민주화의 성지였던 곳이 많은게 놀라웠다. 그리고 답동 성당은 내가 생각한거 보다 인천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당이였다. 다행히도 답동성당은 사진 촬영이 가능하였다. 또한 답동 성당 건물 옆에 역사관이 있어서 더욱 잘 알아볼 수 있었다. 역사관 내에서는 신부님들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신다. 안예를 방문해보면 우리나라 최초 신부님인 김대건님의 유품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인 신부님들 뿐만 아니라 민주화의 기여하신 많은 외국인 신부님들의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성당 내에 있는 사진을 보니 밤에 오면 성당에 불빛과 밤하늘이 이루어져 매우 멋진 장관을 이루어냈다. 다음에는 밤에 방문해서 실제로 꼭 보고 싶은 광경이었다.

이번 여행을 마치면서 내가 아직 배움이 부족하다는걸 알았다. 서대문 형무소나 명동 성당같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데 여태까지 서울가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내가 방문한 곳 말고도 성지가 더 있을것이다. 앞으로 어디를 갈 때에도 그런걸 고려하면서 가게 될 수 있는 큰 계기가 된 여행이었다.

답사후기 이상윤

명동 성당 민주주의를 외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탄압을 하며 성당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소리를 내며 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명동성당은 앞에 서있는 것만으로도 웅장함을 느낄 수 있었고 현재에도 활발히 미사가 진행되고 있다. 내부 사진은 안타깝게도 허락되지 않아 찍지는 못했지만 눈으로 보고 느끼며 그 시절의 아우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서대문 형무소 서대문형무소는 가장 직접적으로 탄압과 그 시절의 처절함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정말 작은 방 안에 사람들을 가두고 여러 고문들을 한 흔적들을 볼 수 있었는데 분노가 올라왔다. 그리고 그분들의 처절한 민주주의 운동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정말 감사했다.

답동 성당 답동성당에서도 활발히 민주주의 운동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답동성당에서 인천주보를 발행하여 민주언론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언론이 탄압당하던 시절에 성당에서 용기 내어 인천주보를 발행하여 민주주의 운동을 했다는 것이 정말 인상 깊었다. 민주주의 운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

답사후기 황상진

명동 성당 우리는 첫 번째 탐방지로 명동성당에 방문했다 민주화 운동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으려 했지만 사진 촬영 금지로 인하여 추가적인 자료들을 찾지 못하여 사진 촬영이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하였다. 부족함이 남아 인터넷 자료들을 활용하여 '명동성당에' 관련된 자료들을 준비하게 되어 아쉬움이 남는 탐방이었다. 그래도 인권의 추구(quest for human rights)와 정의의 요구(demand for justice)는 민주주의로의 이행에서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도 여전히 중심 주제가 아닐 수 없다. 그 한가운데에 다시금 명동대성당이 있다. 이 세상 곳곳을 바꾸는 일. 주님의 뜻대로 한국 사회 안에 정의를 바로 세우고 모든 인간이 진정코 인간답게 살수 있게 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명동대성당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본다.

서대문 형무소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바로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하였다. 서대문 형무소는 우리 민족이 일제에 대한 강제점령이라는 아픔을 간직한 장소이다. 하지만 이 곳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었다. 직접 보니 과거 선조들의 아픔과 민주화 정신이 나에게도 느껴졌다

답동 성당 우리는 두 번째 날에 답동성당역사관에 방문하였다. 답동성당에 대한 영상을 보고 직원분이 답동성당의 역사, 민주화 운동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탐방을 통하여 민주화 운동이 한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렇게 활발히 일어났는지 이번 탐방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정신을 본 받아 우리도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김인혁
김지민
하수민

학생들의 나라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학생 민주화 운동



01. 탐방 주제

| 탐방 주제 | 탐방 장소 | 탐방 이후 |

학생들이 나라의 미래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학생 민주화 운동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 근·현대사 기간 동안
억압통치와 정면으로 대결하였다.
이러한 **학생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중심이었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920년대
예) 광주학생운동



1960년대
예) 6.3 학생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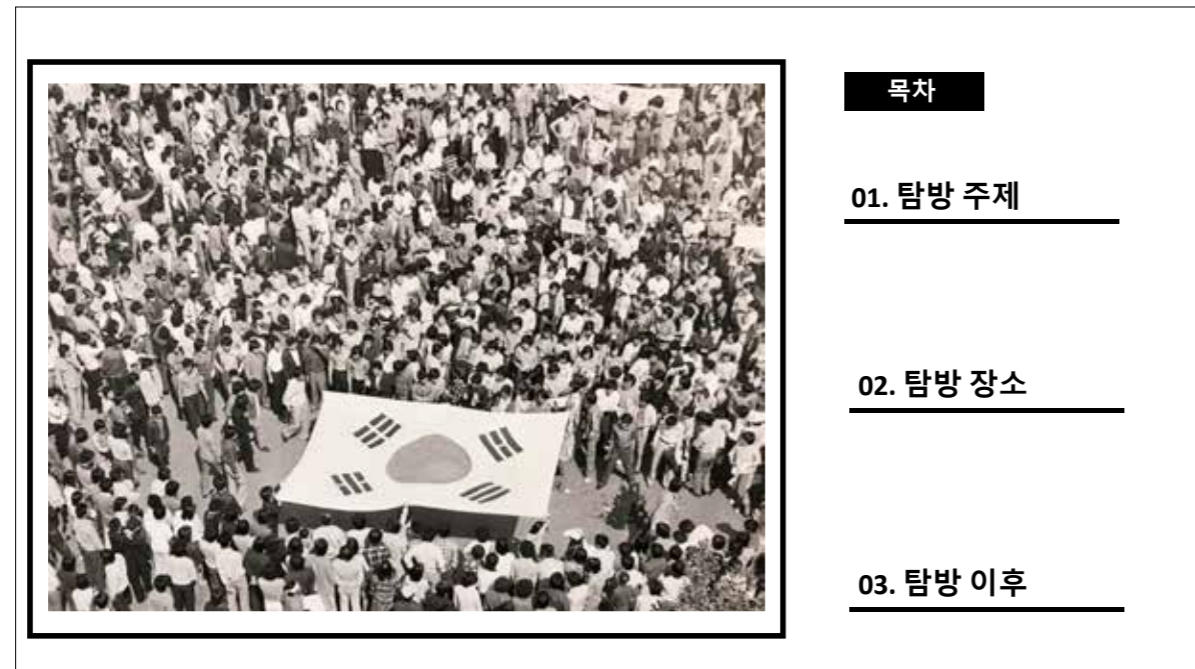
1987년
예) 6월 민주 항쟁

02. 탐방 장소

| 광주 | 인천 | 서울 |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

민주화 운동의 핵심, 광주



02. 탐방 장소

| 5.18 민주묘지 | 옛 전라남도청 | 전남대학교 |

5.18 민주묘지



02. 탐방 장소

| 5.18 민주묘지 | 옛 전라남도청 | 전남대학교 |

5.18 민주묘지



02. 탐방 장소

| 5.18 민주묘지 | 옛 전라남도청 | 전남대학교 |

5.18 민주묘지



02. 탐방 장소

| 5.18 민주묘지 | 옛 전라남도청 | 전남대학교 |

5.18 민주묘지



02. 탐방 장소

| 5.18 민주묘지 | 옛 전라남도청 | 전남대학교 |

5.18 민주묘지



이한열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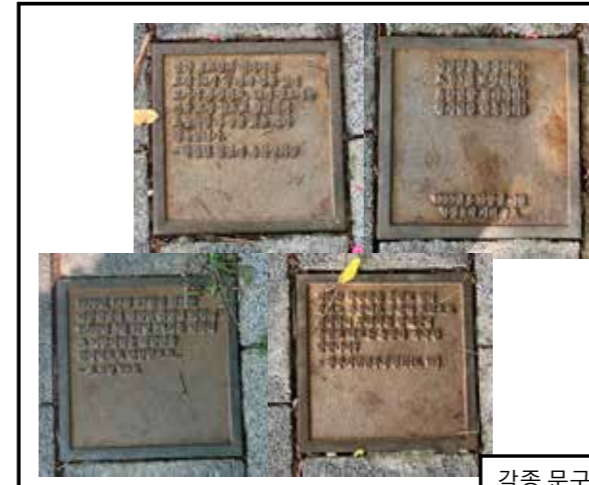


이한열열사

02. 탐방 장소

| 5.18 민주묘지 | 옛 전라남도청 | 전남대학교 |

전남대학교



각종 문구



사적비

02. 탐방 장소

| 5.18 민주묘지 | 옛 전라남도청 | 전남대학교 |

옛 전라남도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적비



옛 전라남도청



문화공간

02. 탐방 장소

| 5.18 민주묘지 | 옛 전라남도청 | 전남대학교 |

전남대학교



김남주 돌



김남주 돌

02. 탐방 장소

| 5.18 민주묘지 | 옛 전라남도청 | 전남대학교 |

전남대학교

윤상원 숲



윤상원 숲



02. 탐방 장소

| 광주 | 인천 | 서울 |

노동 /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지닌 도시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 인천

1980년 5월 광주 이후 최대규모의 시위인 5.3인천민주항쟁은 민주주의와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투쟁이다. 이에 대대적인 검거와 탄압으로 뿌리째 뽑으려 했으나 부천 성고문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6월 민주 항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진출처: 인천민주화운동센터

02. 탐방 장소

| 5.18 민주묘지 | 옛 전라남도청 | 전남대학교 |

전남대학교

교육지표마당



교육지표마당



02. 탐방 장소

| 6월 민주항쟁 기념비 (부평) |

6월 민주항쟁 기념비 (부평)



02. 탐방 장소

| 광주 | 인천 | 서울 |

전국으로 퍼진 민주화의 바람

6월 민주항쟁과 서울



故 박종철 열사

1987년 1월 14일,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및 물고문으로 인한 고문치사

故 이한열 열사

1987년 6월 9일, 6.10 대회 출정을 위한 범연세인 총궐기 대회 참여 중 최루탄 피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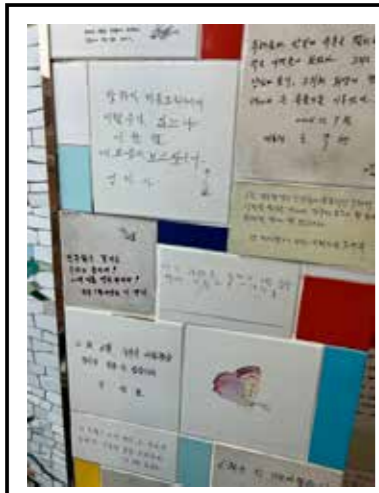
사진 출처: 네이버 인물정보

사진 출처: 네이버 인물정보

02. 탐방 장소

| 이한열 기념관 |

이한열 기념관



02. 탐방 장소

| 이한열 기념관 |

이한열 기념관



03. 탐방 이후

| 탐방 주제 | 탐방 장소 | 탐방 이후 |

탐방을 진행하면서...

배운 점 및 느낀 점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민주주의 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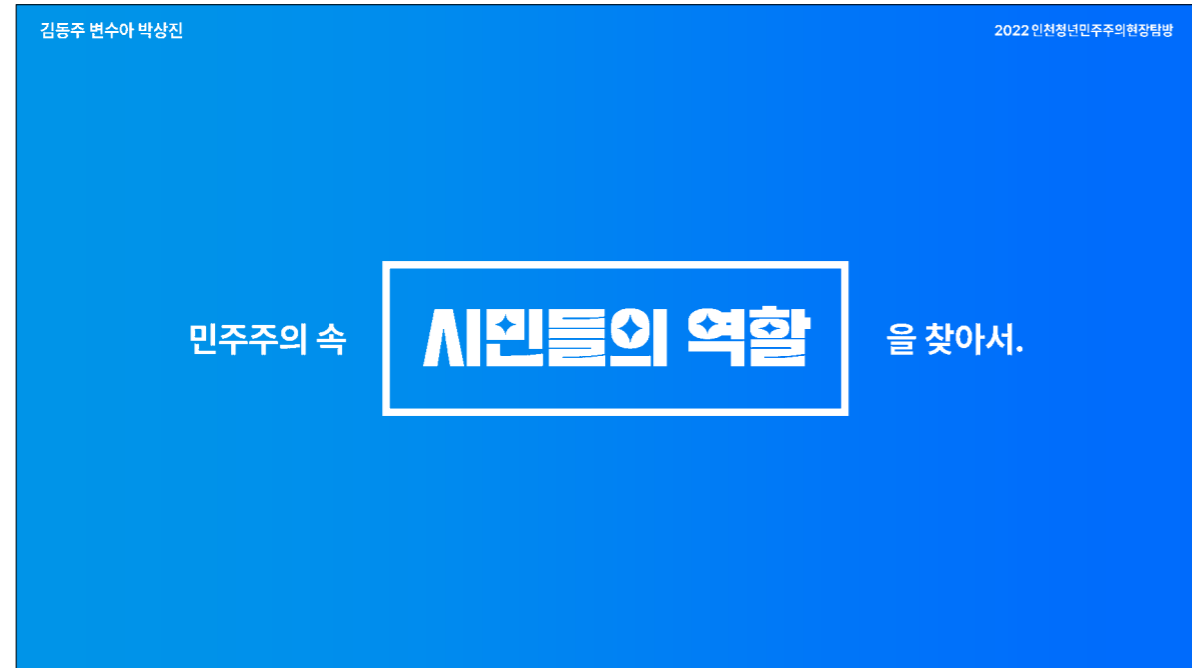
민주화 운동의 결과물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며, 민주주의에 더욱 관심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

사진 출처 : https://blog.naver.com/chilga6043/221587028523



김동주
변수아
박상진

민주주의가 당연하지 않았던
시절부터 국가의 주인인 시민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팀원소개

인하대 사학과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관심



김동주
#팀장 #계획서담당 #STJ



변수아
#팀원 #PPT담당 #ESFP



박상진
#팀원 #호기심담당 #ENFP

탐방 기획의도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인 시민으로서
당당히 서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탐방 기획의도

현재의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당연한 권리지만,
당연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다는 것에서 착안



2022 인천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01. 역사적 사건 선정

민주주의속 시민활동을 찾아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신민에서 벗어나려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주주의 운동



인천 5.3민주항쟁
6월 항쟁의 단초
시민공원 역에서의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화 운동
민주주의 정착의 결실,
시민들의 역할에 대하여

2022 인천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02. 지역 선정 민주주의속 시민활동을 찾아



1. 인천
5.3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의 도화선



2. 서울
독립협회의 활동
만민공동회 집회



3. 천안
천안역 광장
농민/도시민 운동

INCHEON

- 인천 시민공원
- 6월 항쟁비

SEOUL

- 서대문 독립공원
- 독립협회 창립 총회터

CHEONAN

- 천안역 광장
- 천주교 오룡동 성당
- 신부동 공원

2022 인천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2. 독립협회 창립총회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98







독립협회의 흔적을 찾아

독립협회는 1896년 7월부터 1898년 12월까지 자주민권, 자강운동을 추진했던 단체이다.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계몽운동으로서 자주민권, 자강운동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 후의 민족 운동의 전개에 영향을 끼쳤다.

독립협회가 되면서 외세에 이권을 넘겨주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군중집회인 만민공동회를 주도하여 러시아와 일본의 영향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기존 유학자부터 천민까지 다양한 집단을 포섭하여 근대적 자유민권사상을 확산시켰으며 식민지 시대, 해방 이후에도 독립협회 구성원들이 큰 영향력을 가졌다.

2022 인천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1. 서대문 독립공원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47 독립문역

독립협회의 흔적을 찾아

정일전쟁과 아관파천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독립협회의 전신인 독립문 건립추진위원회는 자주독립을 주장하면서 당시의 지식인과 국민들의 이목을 끌어들였다. 이들은 1896년 모금을 시작하여 1897년에는 독립을 위한 상징물로 프랑스의 개선문을 본따서 과거 청나라의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다.

그리고 모화관을 고쳐서 독립관으로 개축했으며 1896년 서재필은 독립신문을 창간하면서 적극적으로 민권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켰다.

2022 인천청년민주주의현장탐방

3. 옛 시민회관 쉼터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90-4




시민들의 쉼터가 되다

인천시민회관 터는 인천지역 최초의 시민회관이 있던 자리이다. 1974년 개관한 인천시민회관은 인천시민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되었던 종합공연장으로 인천시립교향악단, 인천시립합창단, 인천지역 민간 극단과 악단 등 인천의 문화예술 단체들의 공연 공간이 아니라, 1981년 인천시의 직할시 승격 축하행사, 인천 5.3민주항쟁 등의 무대가 되기도 했다.

인천시민회관은 인천의 새로운 종합문화공간인 인천종합문화회관이 1994년 개관함에 따라 점차 쇠락하여 2000년 9월에 철거되었다. 시민회관 터에는 '옛 시민회관 쉼터 공원이 조성되었으며, 공원 한쪽에 '인천 5.3민주항쟁 터' 표시석이 세워져 있다.

4. 부평 민주항쟁기념비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장로 16



옛 부평역 역사 (1982 준공, 1997 철거 후 현재의 모습에 이음)

부평역 광장의 열망

부평역 일대는 1899년 경인선이 개통되고 일제에 의해 구제가 개편되며 신시가지가 들어서고 인천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른 곳이다. 1987년 5월 24일, 부평역에서 '광주영령추모 및 민주개헌을 위한 인천시민대회'가 개최되면서 본격적인 인천지역 6월 민주항쟁의 막이 오른다.

이후 점차 민주화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열기가 고조되었고, 일주일 후인 '6.10 인천시민대회'와 6월 26일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평화대행진으로 이어지며 전국적인 민주항쟁에 동참하고 인천시민들의 열망을 보여준 장소였다. 이후 비교적 최근인 2017년 6월 민주항쟁의 인천지역 노동자 조직과 주요 단체들의 집회장소였던 부평역 광장에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 표석이 설치되었다.

6. 천주교 오룡동성당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옛시전길 32



민주화 운동가들을 보호하다

1949년 기존의 성당이 낡고 협소하자 오룡동에 부지를 매입하고 새로운 성당을 건립하면서 오룡동 성당이 시작되었다. 오룡동 성당은 천안에서 민주화 운동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1987년을 전후하여 다양한 활동을 했다. 1987년 2월, 천안지구사제단의 박종철 추모집회가 있었으며, 6월 10일에는 오룡동성당에서 국민운동 천안본부는 '호헌철폐 및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시민대회'를 개최했다. 오룡동 성당은 천안 6월 항쟁의 중심지로 정의구현사제단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1987년 박종철 추모집회(2월), 6월 10일 집회가 처음 시작한 장소이다.

5. 천안역 광장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천안역 광장에 도착하다

천안은 농촌을 포함하고 있어 도시민뿐 아니라 농민들도 다양한 형태로 집회와 시위를 했다. 6월 항쟁의 주요 상징지는 천안역, 오룡동성당, 성황동성당, 고속터미널, 한일쇼핑, 미도백화점 등이 있었으며, 우리는 그 중에서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천안역 광장을 방문하여 광장이 갖는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려 했다. 1987년 민주주의의 열기가 전국적으로 펼쳐진 지역, 천안 고속버스 터미널 앞부터 천안역에 이르는 거리를 중심으로 얼마나 큰 행렬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민주주의를 갈망 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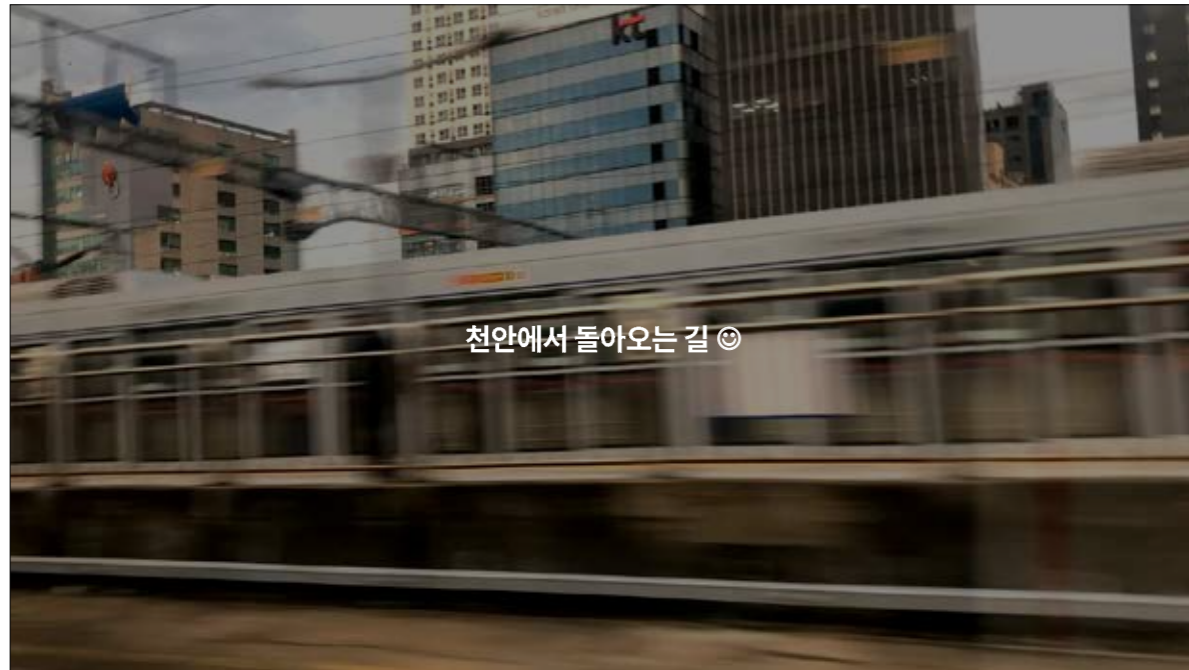
7. 신부공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 2로 인근



6월 민주항쟁기념비를 보다

'6월민주항쟁 30주년기념사업 충남추진위원회'가 2017년 신부공원에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6월민주항쟁기념비를 건립했다. 우리는 이 기념비를 통해서 직선제 개헌이라는 열망이 전국을 덮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소중함, 그리고 민주화 운동에 힘 써주신 모든 시민들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 있었다.



천안에서 돌아오는 길 ☺

03

답사소감

최초의 정착을 이룬 시민활동을 찾아

답사 소감

독립협회의 인권운동부터 6월항쟁까지를 다루면서 민주주의는 당연한게 아니라 시민들이 행동해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오랜 민주화 투쟁 끝에 1987년에 개헌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시민들은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지금 우리 세대가 누리는 권리는 이전에 희생하신 분들로 인해 얻은 것이다. 희생하신 분들과 시민들의 헌신을 기리는 것이 의미가 있고, 투표를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답사 후, 아쉬웠던 점



신부공원을 찾는 과정에서 신부문화공원을 찾아가게 되는 등, 탐방지의 정확한 위치 및 장소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각각의 탐방 장소가 가지는 의미적인 부분에 비해 소홀하게 관리되는 곳들이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박물관 혹은 기념관이 더욱 늘어나서 앞으로의 미래 세대들도 한국의 민주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민주화 운동을 위해
힘 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

어울림

이충현
임다혜
정태운

비석 하나면 다냐

참여 계기

저희는 시민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동료 단체들의 뉴스레터를 받던 중 이런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소식을 받았을 때 '민주화라고 해서 일단은 광주민주화운동이 떠올랐고 광주의 현장탐방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광주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현장이면 다 가능하다는 규정을 듣고 인천시의 현장들을 추가해서 계획했습니다.

팀명은 어울림입니다. 저희 팀원 중 연장자와 연소자가 8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평소 연장자가 말할 때 답답할 때가 많아서 세대 차이를 좀 덜 느꼈으면 해서 연장자가 지었습니다.

광주



■ 국립 5·18 민주묘역과 518 추모관

광주를 당일 여행으로 결정하고 아침 이르게 KTX로 갔습니다. 송정시장에서 국밥 한 그릇씩 먹고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민주묘역입니다. 아무래도 당시 열사들을 추모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묘역은 우리나라에 셋뿐인 민주묘지 중 하나로 가장 마지막으로 지정되고 관리된 묘지입니다. 가는 동안 비가 세차게 와 걱정했는데 도착하자 그쳐 우려를 덜었던 기억이 납니다.

추모관과 추모탑도 기억이 많이 남지만 유명봉안소가 가장 많이 기억이 납니다. 사진이 귀했던 시기에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영정사진 하나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결혼식 사진으로 기억되고 있는 한 분이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과연 나라면? 이라는 생각을 이날 하루 많이 했는데 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 4·19민주혁명기념관과 4·19민주혁명역사관

1960년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최초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에서는 시간대가 안 맞았는지 관리하는 직원 한 명 볼 수 없었지만 역사관에서 당시 학생 신분으로 참여했던 분과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관이 학교 부지 안에 있었는데 당시 학생이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인천 일정과 비교했을 때 건물 전체가 하나의 기념관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광주가 상당히 '기억'에 진심이구나 느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디가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4.19는 이미 60년 이상 지나간,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역사가 되어버린 일이라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 4.19 이후로 아주 파란만장한 한국 근현대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사건 당사자를 만나게 되니 다시 사건의 의의를 다시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 구 전남도청과 전일빌딩 그리고 5·18기록관, 5·18공원

계획은 모든 5·18 유적지를 다 방문하려고 세웠으나 아무래도 시간상 무리라 중요하다 생각해서 되는 곳 위주로 방문했습니다. 구 전남도청은 방문은 했으나 아직은 리모델링 중으로 당시를 설명하는 입간판 정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후 전일빌딩 245에 방문했습니다. 원래도 중요한 사적지였으나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철거와 리모델링 사이에서 갈등하다 리모델링으로 결정 난 후 그 과정에서 헬기에서 총기를 난사했다는 탄흔이 발견되어 5·18당시 군대가 민간인을 학살하려 했다는 주요 증거가 나온 곳입니다.

만약 철거를 했더라면 탄흔이 발견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철거라는 방향을 뒤집기는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주요 증거물이 맥없이 사라지는 일을 겪게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5·18기록관 방문이 광주 여행의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거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된 곳인데 5.18민주화운동에 알고 싶다면 이곳에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종 미디어와 학창 시절 교과서 등으로 어렵풋이 알고 있던 당시 사건을 주욱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하다는 마음과 나라면? 하는 마음이 반반씩 솟구치는 장소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탐방은 여기서 끝내고 이후 일새주 한 잔씩 하며 광주 여행의 진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인천



■ 5·3 민주항쟁터

광주 다음날 바로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광주에서 굉장히 피곤했기에 다들 졸린 눈으로 어찌 어찌 아침부터 일정을 모여서 진행했습니다.

1986년에 일어난 인천 5·3운동은 80년의 광주민주화운동부터 87년의 6·10 민주항쟁 사이에 있는 가장 큰 가두시위이자 6·10 민주항쟁의 맹아 혹은 시발점 등으로 평가받고 있는 데에 반해 남은 유적이 없고 터뿐이라는 것과 기념비 정도라는 것에 적잖이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에서 기념관 건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같은 아쉬움을 가졌기에 그런 것 아닐까 합니다. 벌써 한 세대가 지난 일이라 다음 세대에 구전 및 사료로만 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전날 광주의사례를 보고 왔기에 더욱더 체감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간 비석 앞에 있는 터에서 잠시 의미를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 미문일꾼교회(도시산업선교회) 및 동일방직

다음으로 미문의일꾼교회와 동일방직에 방문했습니다. 이 둘은 동일방직 똥물 사건의 현장입니다. 똥물 사건은 1978년 발생한 노동쟁의 사건입니다. 탐방 일정을 실제로 해보고 정리하며 답사기를 써보니 주제는 '보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문의일꾼교회와 동일방직은 현재는 남아있지만 곧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장소입니다.

미문의일꾼교회 일대는 현재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교회 건물 존치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 5월 원형 그대로의 이전으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이전 후 기념관으로 확장 운영된다고 하는데 어찌 되었든 현재의 자리에서는 사라지는 셈입니다. 동일방직도 마찬가지로 현재 공장시설은 남아있지만 현재 동일방직 웹사이트에서 사업장 정보를 찾아볼 수 없는 방치된 장소입니다.

참여자가 몇만에 달하고 그중 일부 참여자는 그 이후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활동을 보이는 5·3 민중운동에 비해서 동일방직 똥물 사건은 사건 당사자의 수도 적고 그 이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노동자 계층이었기에 더더욱 기념관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원만한 추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부평역 광장과 부평 공원 그리고 미쓰비시출사택

부평역 앞에는 87년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 비석이 있습니다. 답사 일정을 짜기 전에 인천에 있는 민주화 유적지 등을 찾아보긴 했는데 대체로 이곳과 같이 비석 하나 세워져 있는 편이었습니다.

부평공원에는 일제 강점기 징용노동자들을 위한 동상이 있습니다. 당시 징용노동자들은 인천 육군조병창에서 일을 했고 조병창의 하청 공장인 미쓰비시(삼릉)직원들을 위한 기숙사인 출사택도 인근에 남아있어서 방문했습니다.

이 출사택도 2019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는 논의가 있었지만 강제징용의 뚜렷한 증거물이기엔 역사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보존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저희가 직접 본 모습으로는 확실히 너무 낡아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보기 싫은 것을 모두 없애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적절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인천육군조병창은 해방 후 그대로 미군의 손으로 넘어갔고 이후 캠프마켓으로 이용되다가 최근에서야 인천시에게 관리가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토양오염 등의 이유로 보전이 아닌 재개발을 주장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조병창부터 캠프마켓으로 이어지는 귀중한 역사 유적을 지켰으면 합니다. 과거의 것이라고 해서 박물관에서만 본다거나, 아니면 표지판 하나로 기념한다던가, 관련자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지 않았으면 합니다.



■ 맺으며

이들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광주와 인천의 민주화 역사 현장을 둘러보게 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화운동을 계속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아직 민주화가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정치, 제도로서 민주화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우리 생활 속에서의 민주적이지 못한 순간들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탐방 동안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 물질적인 기억 매개체가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보전과 존치는 안될 말이고 그 적절한 기준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것도 뻔한 일입니다. 그래도 분명히 논의,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이번 년도에 참여하지 못한 저희 사무실 동료들에게도 추천을 해주고 싶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에게 이 프로그램의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위한
청년 유람단

백승훈
김민규
김대윤

주변의 역사를 기억하는 일

인천민주화 운동센터

가장 먼저 방문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이곳에서 인천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와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들을 수 있었다. 알려진 역사와 대중들이 잘 모르고 있는 역사까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인천이 가지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비해서 기념관 건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셨다. '인천이 토박이가 적고 타향사람들이 많은 도시여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타향에서 인천에 정착한 우리 부모세대도 인천에서 민주화운동을 겪었을 테고 도시를 떠나 당시 대한민국이 민주화의 바람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민주화운동을 기억하는 것에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 같고, 기념관건립이 하루빨리 추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5.3 민주항쟁터

5.3민주항쟁터는 당초 계획에 3일차 일정에 있었으나, 센터에서 먼저 방문하기를 추천해주셨다. 향후 3일차 일정의 수정이 필요했지만 적절하게 추천해주신 덕분에 동선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시민공원을 비석이 지키고 있었다. 팀원들도 자주 오가는 시민공원에 비석이 있다는 것을 이번 탐방을 계획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우리가 사진을 찍고 비석주위를 돌며 글귀를 읽고 있으니 다른 시민들도 비석에 관심을 보였다. 30년전, 독재정권을 향한 정의로운 외침은 노동자, 학생, 시민 등 인천의 민중이 두루 참여하였다. 수풀이 좀 우거져 설명이 쓰여 있는 돌은 찾기 좀 어려웠다.



죽산 조봉암 선생 추모비

강화도 진해공원에 있는 죽산 조봉암 선생 추모비.

조봉암 선생은 교과서에서 배웠을 정도로 알려진 인물인데 강화도 출신인 사여서 강화도에 추모비가 있었다. 교과서에서 배운다고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다. 이번 탐방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직접 방문하여 더욱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면 7,80년대를 보통 떠올리지만 조봉암 선생은 그에 앞서 정권에 의해 희생당한 분이다. 건국 초기 민중들을 위해 애쓰셨지만 진보당 사건을 계기로 사형을 선고 받고 그 해 집행되었다. 역사적으로 조봉암 선생의 죽음이 민주화운동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아니지만 조봉암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인사들이 독재정권에 의해 희생당하는 것을 보고 민중들의 마음 속에 여러 사건들이 쌓이고 쌓여 7,80년대 분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강화중학교 4·19혁명 기념비

강화중학교 교정 내에 기념비가 있다. 당시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문이 열려있어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었다. 비문에 쓰여 있듯이 강화중학교만 참여한 것이 아니고 강화고등학교, 강화중학교, 강화여자상업고등학교, 강화여자중학교 등 여러 학교에서 참여하였다고 한다. 4.19혁명 당시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는 탐방일정이었다.

민주항쟁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참여가 다른 계층에 비해 빠르고 선도적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시기에 따라서는 학생 중에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대 학생에 비해 빠르게 참여한다. 어지럽고 혼란한 시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눈이 이 당시 학생들에게 있었다.



4.19혁명 기념비
1960년 4.19혁명 때 강화고등학교를 비롯한 강화중학교, 강화여자상업고등학교, 강화여자중학교 등 4개 학교 1천여 명의 학생들이 강화읍 일원에서 3.15부정선거와 비위고직자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하여 민주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역사적 대업에 동참한 사실을 길이 남기기 위해 4.19혁명 61주년을 맞이하여 이 기념비를 세운다.



2021년 5월 7일
강화4.19혁명동지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

평화전망대

평화전망대는 당초 계획된 일정은 아니지만 숙소와 가까워 좋은 기회에 방문하였다. 통일이나 남북갈등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해방기 한반도 정치적 상황에 많은 아쉬움이 생긴다.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만 당시 한반도가 분단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 역사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추측해본다. 북한을 빌미로 많은 민중과 정치인사를 탄압하는 방식으로 독재정권이 유지되었다. 독재정권들이 득세할 때마다 분단된 한반도 상황이 이용되었다. 서울보다 개성이 더 가까운 강화도 평화전망대에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해본다. 여담이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장면을 흥내내어 사진을 찍어보았는데 생각대로 잘 표현되지는 않았다.



부평 6월항쟁기념비



마지막 일정인 부평 6월항쟁기념비다. 강화도 일정과 며칠 간격을 두고 다시 한번 모이게 되었다. 3일차 일정이 수정되어 이 날은 6월항쟁기념비만 방문하였다. 부평역에 기념비가 있다고 알고 찾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 결국 이전에 방문한 시민들이 올린 사진으로 위치를 추정하여 방문하였다. 부평역이라는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곳에 기념비가 있음에 놀랐지만 인터넷포털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부평에서 10년을 거주한 팀원도 기념비를 처음 방문한 경험이라고 하는데 시민공원의 5.3민주항쟁터를 비롯하여 주변의 역사를 기억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주강혁
한민
현한나

L의 운동화 우리의 운동화

들어가며



■ 답사 목표 및 주제

우리는 과거와 달리 민주주의를 당연하게 누리며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듯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사회는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이룩된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상기하며 청년 민주주의 현장 탐방에 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망각했던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슴에 되새기고, 특히 저희가 학생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과거 학생운동이 있었던 장소에서 우리와 같은 학생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발자취를 따라 걷기로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학생들이었던 그들의 민주화를 향한 열정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무엇인가를 고민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탐방 목표이자 주제입니다.

■ 탐방제목 선정

저희는 탐방 제목을 'L의 운동화, 우리의 운동화'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L의 운동화란, 19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된 청년 이한열의 운동화가 복원되는 과정을 그린 김숨 작가의 장편소설 제목입니다. 이한열 열사는 학생이라는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인물입니다. 민주화를 위해 산화한 것처럼 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지만 적어도 그가 걸었던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저희를 이한열 열사에 투영하여 탐방 제목을 'L의 운동화, 우리의 운동화'로 설정했습니다.

답사기

첫 번째 탐방 광주광역시

광주에서 첫 번째로 간 곳은 양림동 근대역사 문화마을에 있는 3·1만세운동길¹⁾이었습니다. 이곳에는 3·1만세운동 당시의 역사가 벽화로 새겨져 있었고, 호남 지역의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만세운동길에서 양림교회를 볼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동네마다 있는 평범한 교회 중 하나로 생각했으나 교회 앞에 쓰여있는 팻말을 보고 양림교회가 광주 만세운동의 주요지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양림의원 ~정율성거리



광주 양림교회 벽화와 선교사 유진 벨



2)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기독교 여자 청년회

3) 전남도청 별관.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13

저희가 양림 근대역사 문화마을에서 두 번째로 방문한 장소는 조아라 기념관이었습니다. 광주 YWCA²⁾ 명예 회장이셨던 조아라 여사는 '광주의 어머니', '민주화의 대모' 등으로 불리며 항일투쟁, 민주화, 여성운동 등 자유를 위해 일평생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다만 코로나의 여파가 채 가지지 않은 시점의 탐방이었던지라 기념관의 내부는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아쉬웠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방문한 곳은 옛 전남도청³⁾이었습니다. 영화 '화려한 휴가' 등 미디어로만 보던 그 장소를 직접 눈으로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옛 전남도청은 광주 시민들의 최후 항쟁지였던 만큼 계엄군들의 총탄 자국이 이곳저곳에 박혀있었고, 수많은 군중이 모여서 민주화에 대한 결의를 다졌던 광장 분수대도 잘 보존되어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4)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광주 동구 금남로 221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올해 5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상무관 탄흔조사 작업으로 인해 상무관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쉬운 마음부터 들었으나, 이내 여전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조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5·18 민주화운동기록관⁴⁾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마침 5·18 당시 광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큐레이터님이 설명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큐레이터님의 설명을 통해 5·18 당시 광주 지역에서의 어둡고 우울한 참상, 한편으로는 그때 광주 시민들의 질서정연하고 용기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작지만 신기한 일화도 있었는데, 5·18 당시 훈련병이었고 광주에 투입되기 직전의 상황이었던 어느 한 관람객분이 저희 앞에서 당시 자신의 심정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당시 대학에 다니다 입대한 훈련병에 불과했던 그분의 착잡한 심경을 들은 저희는 그 당시 광주가 느꼈을 공포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5) 전일빌딩. 광주 동구 금남로 245

다음으로는 계엄군들의 헬기 사격이 있었던 장소인 전일빌딩⁵⁾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김은주 작가의 “오월 어머니, 그 트라우마”라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는데, 5·18 민주화운동 당시 피해자였던 현재의 생존자들이 어둡게 촬영된 사진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5·18이 남긴 고통과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전일빌딩의 옥상에는 옛 전남도청과 광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옥상정원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광장을 바라보던 저희는 문득 독일의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가 이 풍경을 보며 광주 시민들을 카메라에 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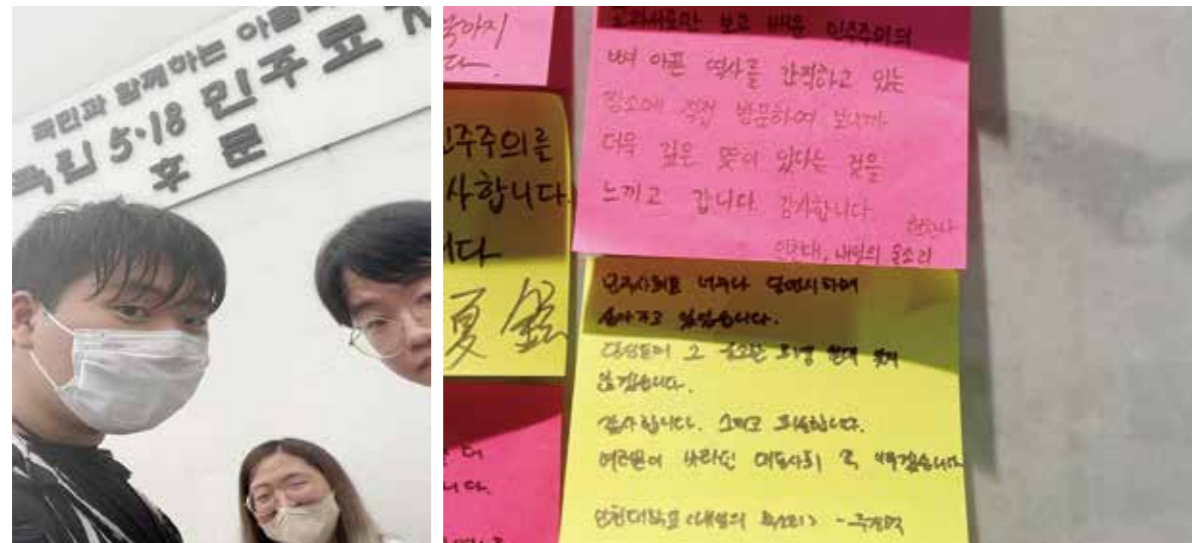
6) 4·19혁명 기념관. 광주 동구 무등로 328

그 후 저희는 광주광역시 4·19혁명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우선 그곳에 사진으로 모셔져 있는 4월 혁명의 영령분들을 추모했고, 그 직후에는 마침 기념관의 소장님을 뵈게 되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저희가 인천 민주화운동센터에서 주관하는 민주주의 청년 탐방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매우 기뻐하시며 저희에게 광주의 4·19 이야기를 직접 설명해주셨습니다. 설명이 끝난 후 소장님께서 4·19혁명 관련 서적을 나누어 주시며 앞으로의 탐방을 응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남대학교 정의의 길로 향했습니다. 전남대는 5·18 민주화 운동의 시작점이자 학생운동의 성지와도 같은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안에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여러 조형물과 시설, 기념관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우리 팀이 광주 지역 답사를 마무리 지었던 장소는 망월동에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였습니다. 우리는 내부의 추모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참혹한 역사를 되새긴 후, 제2 묘역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영면 중이셨던 이한열 열사와 여러 민주투사분의 무덤 앞에서 고개 숙여 참배하고, 동시에 그들의 의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두 번째 탐방 인천광역시

광주 지역에서의 답사를 마친 후, 우리는 인천 지역 답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이번 <2022 민주야 여행가자>를 주최한 인천 민주화운동센터였습니다. 센터장님을 만나 대한민국 민주 투쟁의 자세한 역사와 그 속에서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었던 진실 등을 들을 수 있었는데, 다른 일반적인 답사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귀한 시간이었던 터라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5·3 민주항쟁 터를 둘러보았습니다. 5·3 민주항쟁은 인천 지역에서 벌어진 민주화운동으로, 많은 민주투사분께서 당시 정권에 의해 큰 고통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6월 민주항쟁이라는 대규모 민주 투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위의 5·3 민주항쟁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13 호헌 조치 등으로 촉발된 6월 민주항쟁은 많은 희생 끝에 결국 직선제 개헌을 쟁취해낸,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민주화 투쟁이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비석이 부평역 광장에 놓여있는데, 거기에 쓰여 있는 문구는 '6월의 꽃, 촛불로 타오르다', 마치 부도덕하고 부패한, 위법적인 정부를 국민의 촛불 하나하나를 통해 퇴진시키는 데 성공했었던 2017년을 연상하게 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인천 기계공고에 있는 4·19 의거 기념탑을 답사했는데, 이처럼 인천 지역의 여러 학생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확립에 힘써왔다는 사실에 인천 지역 대학생으로서 자부심, 그리고 이웃과도 같은 그들에 대한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독재에 항거하던 민주투사들을 보호해주었던 담동성당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민주화운동 성지로서의 가치도 크지만, 분위기와 건축양식 자체만으로도 매우 경건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런 멋진 장소가 인권운동 조형물들과 어우러지니 송고미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인천 지역 3·1 운동의 진원지였던 창영초등학교, 마찬가지로 대규모 3·1 만세운동이 진행되었던 곳이자 3·1 만세운동 기념관이 있는 황어 장터를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두 장소 모두 과거의 역사가 고스란히 간직된 듯한 분위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탐방 서울특별시

우리 '내일의 목소리' 팀이 가장 마지막으로 답사한 지역은 서울입니다. 우리는 먼저 강북구에 있는 국립 4·19 민주묘지를 방문해 영령들의 무덤과 사진 앞에서 참배했습니다. 그 후, 기념탑 및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막대한 고통과 희생에도 끝까지 부당한 독재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4·19 의거 민주 시민들의 역사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유신 체제 당시 3·1 민주선언이 개최되었던 장소이자 6월 민주항쟁 당시 수많은 민주투사가 몸을 숨기고 농성을 할 수 있었던 장소인 명동성당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6월 항쟁의 기폭제이자 상징이었던 위대한 민주열사 이한열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세대학교의 이한열 동상을 찾았습니다. 이한열의 모습이 새겨진 여러 조형물들과 함께 '198769757922'라는 숫자가 나열된 비석이 있었습니다. 이는 6월 항쟁의 시작과 이한열 열사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과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며 위대하면서도 안타까운 위인이었던 이한열 열사의 삶에 대해 확실하게 직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 과거 민주투사들에 대한 참혹한 고문이 있었던 남영동 대공분실 터에 속죄의 의미로 세워진 장소인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그리고 전투경찰들의 무자비한 최루탄 투척에 의해 목숨을 잃은 이한열 열사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이한열 기념관을 찾아가 보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이번 답사의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 미 군정, 이승만 정부를 거치며 계속 억압과 지배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옛 경무대 터가 있는 청와대를 둘러보았고, 독립 선언문이 낭독된 3.1운동의 발상지인 탑골 공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답사할 당시에 경무대 터가 있는 청와대의 경우 상당히 혼잡했던 반면, 탑골 공원의 경우 의외로 인적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끝맺음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권은 바로 일반의지의 행사이므로 양도할 수 없다.” 이런 세상을 대한민국에서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염원과 희생이 있었는지, 이번 답사를 통해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우리가 그들처럼 직접 민주화 투쟁을 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이 가진 정의관과 강한 의지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인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탐방 후기

처음에 탐방 계획을 짤 때 어디를 가야 할지 주제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등 힘든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탐방은 제대로 가능할지, 보고서는 또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막상 탐방을 시작해보니까 내가 생각한 힘든 부분은 간간히 생각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즐거운 경험이었다. 막상 팀원들과 탐방을 진행했을 땐 여행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팀원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여행가는 기분이 들었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추억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단순한 관광이나 탐방이 아닌 역사적 사실과 그 흔적을 쫓아가는 탐방 주제에 맞춰 역사를 알아가고 탐방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알고 있던 사실과 추가적으로 알게 된 사실들을 배움으로 역사에 흥미를 더욱 불어넣게 되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장소에 방문해서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역사를 배우고 남겨진 흔적들을 보는 즐거움은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기록관 등의 장소에 방문하여 설명을 듣는 모습과 역사적 인물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누구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나이 때 나는 몰랐던 내용들인데 하면서 이런 장소들이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방문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을 느꼈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에서 역사까지 배울 수 있다면 그게 좋은 경험이 아닐까 생각했다.

무엇보다 누구나 알고 있는 역사지만 막상 그 장소를 방문하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나 또한 이러한 기회가 생기기 전까진 스스로 찾아가는 경우는 없었다.

방문지

이 부분에 대해 탐방을 하면서 책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 보단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은 다른 느낌이란 걸 알게 되었다.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왔고 그래서야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이동의 편리성이나 접근성 그리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역사 장소까지 내가 탐방하고 느낀 걸 공유하면서 다른 이들이 같은 장소를 찾았을 때 더욱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길 바라는 마음도 생겼다

이번을 기회로 다음에 같은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탐방을 하고싶다. 같은 장소를 가더라도 예전과 지금은 다른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 있을 것 같고 이번에 갔던 장소 외에 다른 곳도 방문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다.

■ 광주

- 3·1 만세운동 발상지(만세운동길) (광주 남구 양림동)
-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광주 동구 금남로 221)
- 옛 전남도청 별관 (광주 동구 광산동 113)
- 전일빌딩245 (광주 동구 금남로 245)
- 4·19 혁명 기념관 (광주 동구 무등로 328)
- 전남대학교 (광주 북구 용봉로 77)
- 국립 5·18 민주묘지 (광주 북구 민주로 200 국립5.18민주묘지)

■ 인천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70-8)
- 5·3 민주항쟁 터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90-4)
- 황어장터 (인천 계양구 장기동 139-1)
- 부평역 광장 (인천 부평구 부평동 738-21)
- 답동성당 (인천 중구 답동 3-3)
- 창영초등학교 (인천 동구 창영동 30)
-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4·19 의거 기념탑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6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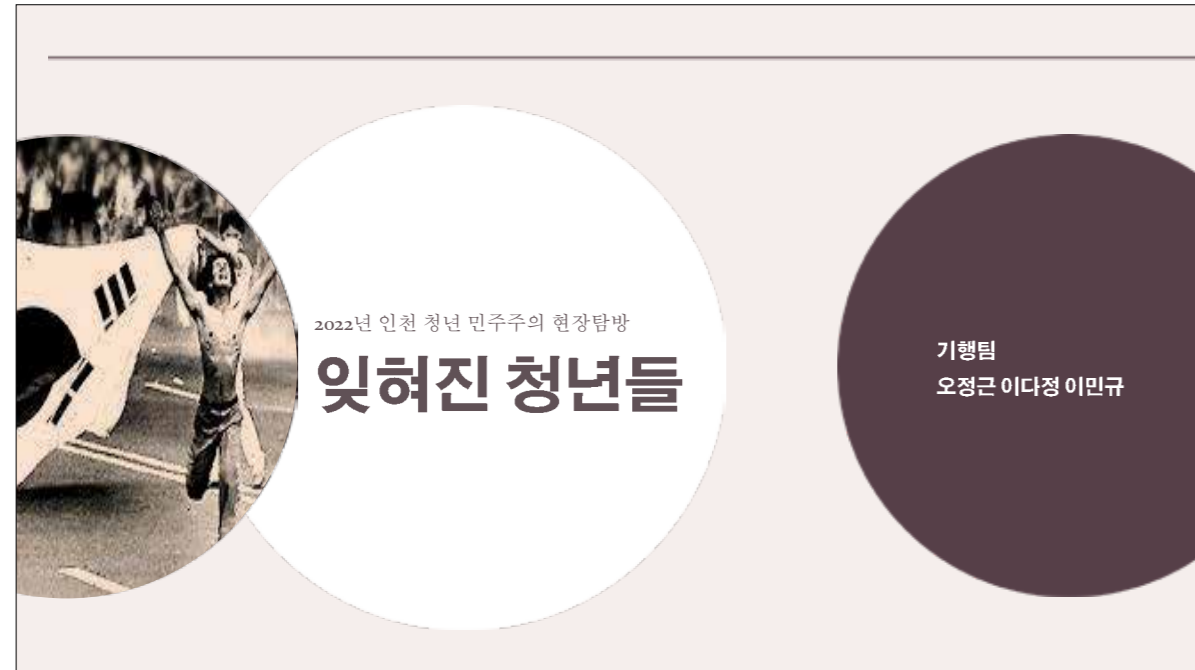
■ 서울

- 청와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 연세대학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
- 국립 4·19민주묘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80)
- 이한열 기념관 (서울 마포구 신촌로12나길 26 이한열 기념관)
- 탑골공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99 탑골공원)

기행

이다정
이민규
오정근

잊혀진 청년들



2022년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잊혀진 청년들

기행팀
오정근 이다정 이민규

01 소개



인하대학교 사학과 학생들

INDEX

01 소개	02 기행 1일차	03 기행 2일차	04 마무리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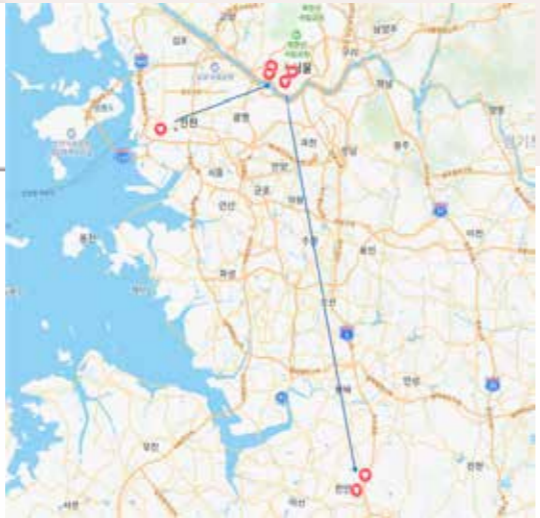


기행

- 01 紀行**
여행하는 동안에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것을 적은 것.
- 02 奇行**
기이한 행동.
- 03 起行**
넘어졌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일으켜 나아가게 하는 것.

주제

학생 신분으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열사들



02 기행 1일차



4-19 학생의거기념탑(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02 기행 1일차



4 · 19 학생의거기념탑(인천기계공고) -> 이한열기념관 -> 이한열 동산(연세대)
-> 안기부 터(서울유스호스텔, 서울종합방재센터, 예장공원 기억6)

02 기행 1일차



이한열기념관(좌)과 이한열 동산(연세대학교)(우)

02 기행 1일차



옛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본관(서울유스호스텔)

02 기행 1일차



서울유스호스텔 관계자와 함께

02 기행 1일차



옛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본관(서울유스호스텔)

02 기행 1일차



중앙정보부 6국(예정공원 기억6)

03

기행 2일차



남영동 대공분실(민주인권기념관 공사 중) -> 천안역 광장
-> 최덕수 추모공원(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03

기행 2일차



천안역 광장

03

기행 2일차



남영동 대공분실(민주인권기념관)

03

기행 2일차



최덕수 추모비(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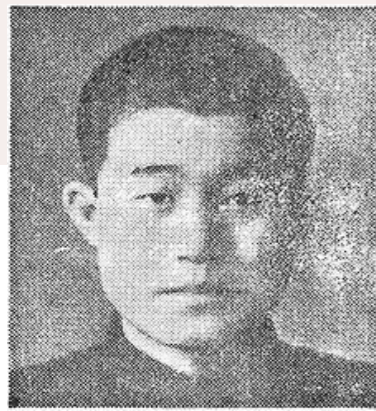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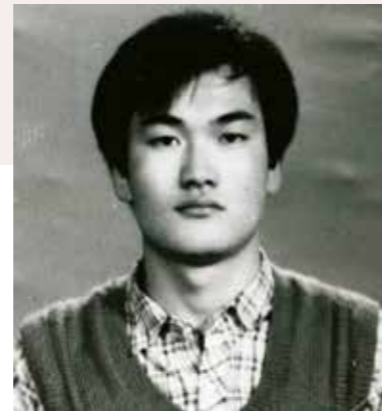
김창섭 열사(당시 25세)
4.19 혁명 당시시위 도중
트럭 위에서 총탄에 맞아 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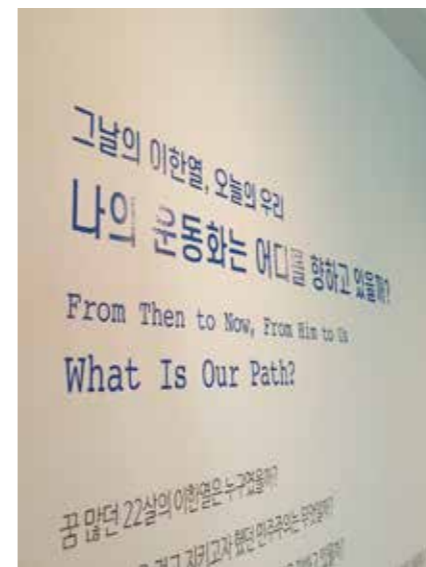
강상철 열사(당시 22세)
1986년 목포역 광장 시위 중 5.18 규명,
직선제 개헌 단행을 촉구하며 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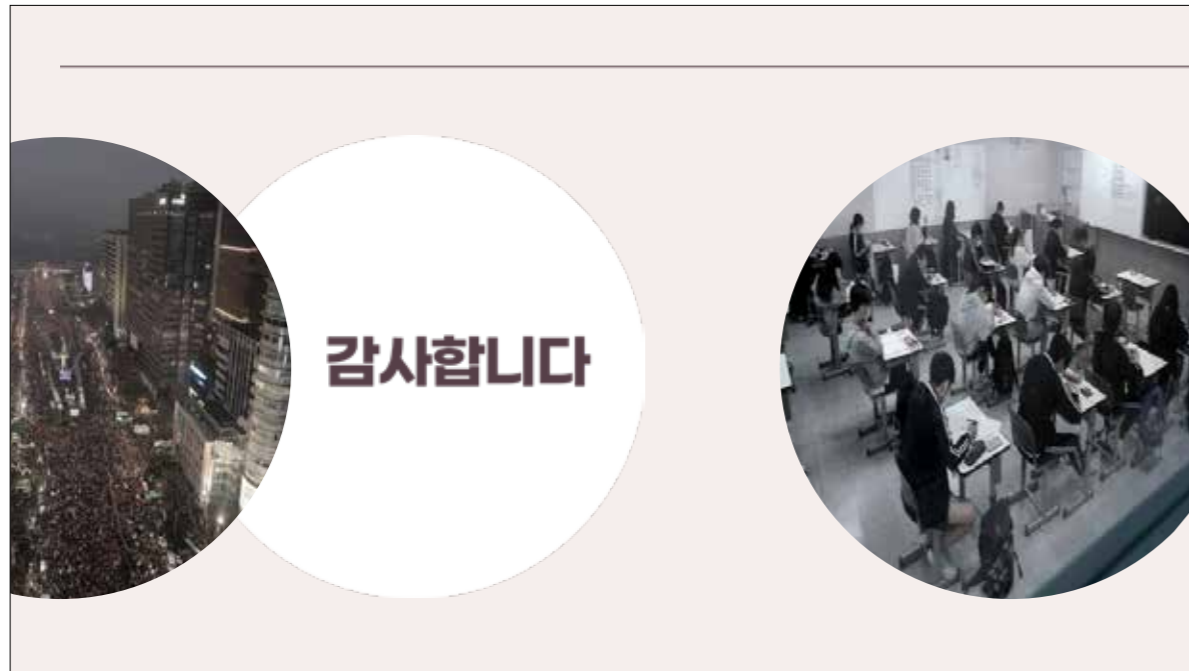


김주열 열사(당시 17세)
4.19 혁명의 도화선



이한열 열사(당시 22세)
6월 민주항쟁 중 순국





숨민다
(숨참고 민주 다이브)

김정원
박영현
안혜민

민주통일을 위한 교육의 첫 걸음

통일 교육, 어떻게 해야할까?

민주통일을 위한 교육의 첫 걸음

TEAM 숨민다.
김정원 박영현 안혜민

Designed by 잠샘스쿨

팀 소개

-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고민하는 예비교사
- 평화통일 및 DMZ 관련 장소를 방문하여 평화통일과 민주화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키워 나가고자 팀 결성!

Designed by 잠샘스쿨

순서

- 팀 소개
- 여정 소개
- 근현대사기념관 - 강화 북한 전시관 - 인천통일관
- 통일 교육,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Designed by 잠샘스쿨

여정 소개

#여정 변경

계획서 상에서는 강북 근현대사기념관, 인천 근대건축전시관, 고성통일전망대 및 DMZ 박물관 탐방할 예정이었으나, 통일교육을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강북 근현대사기념관 - 강화 평화전망대 및 북한 전시관 - 인천 통일관으로 여정을 변경하였습니다.

Designed by 잠샘스쿨

주제 “통일” 선정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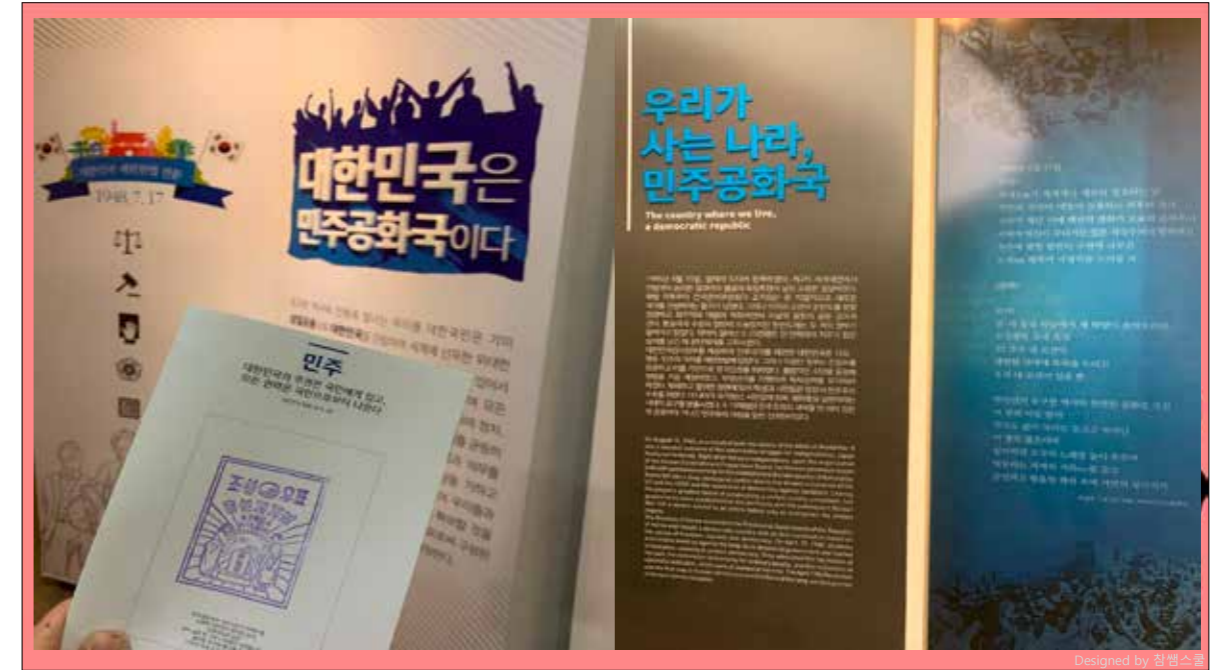
왜 인천인가?

- 동일한 서해문화권(강화,옹진,개성,해주 범항해 문화권)
- 지리적인 접근성: 하늘, 땅, 바다가 맞닿은 통일의 관문
- >한반도와 전 세계를 잇는 평화의 교두보 인천!

왜 교육인가?

-교육을 통해 사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통일 전과 직후에 가장 힘을 써야하는 분야 중 하나가 교육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번 탐방을 통해 통일 교육과 통일 직후의 교육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Designed by 장영스물



Designed by 장영스물

근현대사기념관



- 동학농민운동~4.19혁명까지의 근현대사 이야기를 관람하였다.
-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선대의 노력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 통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Designed by 장영스물

강화평화전망대 & 북한 전시관



- 남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곳이다.
- 북한의 의복, 먹거리, 제도 등 북한 주민의 생활모습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을 관람하였다.
- 남북한의 군사력, 북한의 도발과정,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 민간교류협력, 북한의 개혁 및 개방 추진 등 통일 정책에 대해서도 관람할 수 있었다.
- 먼 곳이라고만 여겼던 곳이었었는데, 이렇게 가까워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더 확실하게 들었다. 전시관에서 관람한 북한의 생활모습이 많이 열악했기에, 그들에게도 더 나은 교육이 제공되길 바라는 마음도 들었고, 통일 이후의 교육의 모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Designed by 장영스물



인천통일관



-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여정을 소개하며, 분단을 이해하고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상상하는 통일교육 체험 공간이다.
- 분단의 아픔과 통일을 향한 노력, 통일의 관문인 인천 이야기, 통일 후 한반도까지 광범위하게 관람할 수 있었다.
-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하나된 통일한국을 상상해서 전시해놓은 공간이었다. 군사적, 경제적 이점은 물론, 문화 및 여행에서도 큰 발전을 이룰 것이라 생각한다. 통일교육을 할 때 이 부분을 활용하여 수업한다면 아이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였다.

분단 국가에서의 통일 교육



- 분단의 아픔 공감하기
- 남북한의 문화 차이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 받아들이기
- 통일한반도 상상하기
(통일 이후의 학교 모습, 여행, 생활모습, 문화, 사회)
- 통일의 이점 알아보기

통일 국가에서의 통일 교육



- 통일 전 교사들이 미리 연구하고 협력하여 수업하며 교육의 차이를 줄여가고, 문화, 생활방식, 제도, 사상 등 여러 분야에 있어 차이를 좁혀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통일 이후, 남북한의 아이들이 서로를 배척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 교육 소외 및 교육 빈곤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 교사 연수 기관 및 시설 확충
- 필요에 따라 특별 과목 추가 (ex. 독일의 노동론)



Designed by 장현정

감사합니다.



Designed by 장현정

봄봄

정가영
유현정
김채림

독립 77주년 기념,
일제강점기·독립운동 속
민주화 운동 바로 알기

탐방 계획

■ 탐방 신청 동기

우리 팀의 경우 모든 팀원이 90년대 후반에 태어났다. 따라서 태어나면서부터 독재정치를 겪어본 적이 없고, 오히려 국민들의 시위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사건을 겪은 민주주의에 매우 익숙한 상태였다. 따라서 민주주의란 당연한 것이었고, 감사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 하지만 2019년 홍콩 시위, 2020년 러시아의 알렉세이 나발니 독살 미수 사건, 2021년 미얀마 쿠데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민주주의가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하지 않고, 어쩌면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19년 홍콩 시위의 경우 중국 정부의 강경한 진압과 팬데믹이 겹쳐 단체 시위가 어렵게 되고, 서방국가의 관심을 잃으며 실패하였다. 그 결과 현재 홍콩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려고 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알렉세이 나발니는 러시아의 정치인으로 푸틴의 부패에 대해 폭로하였다. 현재 나발니는 독살로부터 회복은 했지만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21년 미얀마 쿠데타 사건으로 인해 미얀마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군부 독재 상태이며, 민주화 운동을 인해 1,700명이 넘게 사망하고, 13,000명이 넘는 인원이 구금을 당하였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 하자 러시아가 침공한 사건인데,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침공 등으로 인해 관계가 좋지 않았다. 전쟁은 현재까지 진행 중인데 만약 우크라이나의 지역들이 러시아에 합병이 된다면 합병된 지역들은 러시아의 민주주의 지수가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 지수보다 낮듯이 민주주의 수준이 떨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2021년 민주주의가 지수가 8.16점으로 완전한 민주주의 상태이지만, 현재 북한과 휴전 상태이고, 총선의 투표율이 60%대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참여도가 높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 수준이 떨어져 가는 사건들과 국내의 정치 참여도를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소중함이 더욱 크게 느껴졌다. 따라서 현재의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기여했던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화 운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기 위해 신청하게 되었다.

■ 탐방 주제 선정

탐방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일단 모호하게 알고 있던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정리하였다. 민주화 운동의 정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 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 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이 법을 참고하여 탐방 주제를 선정할 때, 민주화운

동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에는 어떤 권리들이 있나 찾아본 결과 평등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많은 것들이 존재하였다. 민주화운동의 정의와 여러 국민의 기본권들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민주화 운동은 사회적, 경제적, 인권 등 다양한 범주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탐방을 신청하게 된 동기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것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들, 현재의 상황이 되도록 기여한 일이지만 부각되지 않고, 기억 속에서 잊히는 일들 그리고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었다. 관련된 주제에 맞추어 조사하던 도중, 올해가 독립 77주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 일본의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시도, 수요시위 같은 일들이 같이 생각났다. 대한민국 역사 중 가장 인권이 유린되었던 시기로 추정되므로 당시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는지 찾아본 결과 여러 민주화운동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사에서는 일제 강점기 시기 독립운동에 대해서만 배우지만, 그 당시에도 인권을 지키기 위한 많은 민주화 운동들이 있었고, 일부는 독립운동이면서 민주화 운동인 운동들도 있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도 민주화 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고, 일제강점기 때 일어났지만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아 계속 지속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싶어 일제강점기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탐방 준비

■ 사전 조사

탐방 주제에 맞추어 일제강점기에 발생해 현재까지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민주화 운동,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 그 당시 민주화운동을 할 때 감수해야 했던 위험에 초점을 맞추어 탐방 장소를 선정하였다. 각 장소들에 대한 사전조사는 장소에 대한 간단한 조사와 장소, 휴일, 개방시간을 조사하였다.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문제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징용 주제로 정하였다. 두 사건과 관련된 탐방 장소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와 부평공원 강제 징용 노동자상과 평화의 소녀상,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선정하였다. 수요시위는 이름과 같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취지로 열리며, 미리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매주 수요일 12시 정각, 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다. 부평공원은 93년 조성이 추진되었으며, 인천 도심에 있다. 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립된 동상이다. 강제 징용 노동자상은 일제강점

탐방 계획

8/17(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12:00-13:00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14:00-17:00
부평공원-평화의 소녀상, 강제징용노동자상	19:00-19:30
8/18(목)	
독립기념관	10:00-13:00
국채보상기념공원과 기념관	17:00-18:00
8/19(금)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	10:00-11:30

기 강제 징용된 노동자를 기리고, 다시 그런 역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긴 동상이다.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간이다. 대구 중구에 있으며, 화요일에서 토요일 10시~18시까지 관람 가능하며 공휴일과 일요일, 월요일 휴관한다.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으로는 당시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던 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을 주 테마로 정하여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과 기념관 그리고 일제강점기 발생했던 여러 사건들을 볼 수 있는 독립기념관을 탐방 장소로 선택하였다.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은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의 시민정신과 제2의 국채보상운동을 통한 IMF 경제난 극복을 기념하기 위해 대구 중구에 조성된 공원이다. 독립기념관은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독립 과정에 대해 알 수 있는 장소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응해 국민 모금을 통해 개관하게 되었다.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해 있으며, 3월~10월의 경우 9:30~18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휴관일은 월요일이다.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 민주화운동가들이 감수한 위험을 알기 위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가기로 정하였다. 서대문형무소는 일제강점기 통치에 저항하는 운동가들을 투옥하기 위해 건설한 형무소로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서울 구치소로 활용되었다.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에 위치해 있으며, 3월~10월의 경우 9:30~18시까지 관람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현장 탐방

8/13(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12:00-13:00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14:00-17:00
부평공원-평화의 소녀상, 강제징용노동자상	19:00-19:30
8/18(목)	
독립기념관	10:00-13:00
이동(천안·대구)	13:30-16:00
국채보상기념공원과 기념관	17:00-18:00
8/19(금)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	10:00-11:30
대구근대역사관	12:00-13:00
서상돈 고택	14:30-15:00

1일차

현장 탐방은 위의 표 2와 같이 이루어졌다. 팀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계획과 날짜가 바뀌게 되었다. 1일차는 서울과 인천지역 탐방을 하였다. 각 탐방지역별로 직접 보고 느낀 점을 작성하였다.

1555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수요시위는 K트윈타워 뒤에서 수요일 12시에 시작되었고, 20분 전에 시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도착한 시점에는 많은 인파가 있지 않았다. 학생들과 선생님이 함께 온 무리가 여럿 있었고, 시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12시가 거의 다 되자 단체 참여가 아닌 개인 참여자들이 오기 시작했다. 1555차 수요시위는 인천국제고등학교의 사회참여 동아리 유토피아가 주관을 맡았다. 시위는 일제강점기에 행해진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해 7가지 항목을 요구한다. 7가지 요구안은 1. 전쟁범죄 인정, 2. 진상 규명, 3. 공식 사죄, 4. 법적 배상, 5. 책임자 처벌, 6. 역사 교과서에 기록, 7.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이다.

정가영 독립한지 77주년이 지났지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슬프게 느껴졌다. 시위에서 주로 발언한 사람들이 고등학생들이었는데 고등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고, 관심을 갖는데 이제서야 수요시위에 참여한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시위 옆에서 수요시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위의 연대발언 중 스피커를 통해 방해를 하여 눈살이 찌푸려졌다. 그러던 중

한 연대 발언자가 "확성기 깐 거짓 하나보다 여러 명이 육성으로 전달하는 진실 하나가 더욱 크고 선명하게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만은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진실을 향해 함께 하기 바란다. 큰 소리에 진실이 묻힐지라도 시간이 지나 남는 것은 진실뿐이다. 진실의 목소리가 꺼지지 않도록 수요집회를 통해 모두에게 알리고 함께 목청껏 소리쳐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듣고 다른 참가자들 또한 마음을 굳게 먹고 있겠구나 싶어서 그 뒤로 더 시위에 집중할 수 있었다. 스피커의 소리가 커질수록 발언자들도 목소리를 더 키워 연대발언을 하는 것을 듣고 부당한 일을 겪으면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시위



1555차 수요시위에서 받은 시위 순서와 팸플릿, 코코순이 복채

에 참여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어색하고, 소극적으로 행동을 했지만 시위가 진행됨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구호를 외치고는 하였다. 단결에 대해 다시 느낄 수 있는 새롭고 좋은 경험이었다.

유현정 수요시위에 참여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은 시위 장소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당황스러웠다. 장소는 오히려 다른 나라 대사관에 더 가까웠다. 또한, 시위 장소의 맞은편 도보에서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틀며, 피켓을 가지고 다니며 시위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였다. 다만 그들을 관찰한 결과 스피커를 틀어 놓고 핸드폰을 오래 하는 등 다소 지루해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 측면을 보았을 때,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이유가 다른 보상이 따르는지 의문이 생겼다. 또한, 유튜브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여서 시위에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온라인을 통해 시위에 참여하여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다만 시위에 참여하고 나서 수요시위에 대해 더 찾아보았는데 사회당 출신의 무라야마 총리 시절에 수요시위에 요구안에 대해 일부 수용하려 했지만 그 당시 정의기억연대의 의견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들이 합치되지 않아 무산되었다고 나와있었다. 수요시위의 요구안이 다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일본의 정권이 바뀌거나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할 텐데 그 시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 수요시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김채림 시위의 규모가 생각보다 컸으며,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시위를 주관하고, 직접 나가서 발표까지 하는 모습을 보며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아 놀라웠다. 시위를 참여하며 이런 문제를 잊지 않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역사 공부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

■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었고, 해방 이후 1987년까지 서울구치소로 이용되어 많은 민주화운동가들이 수감되었다. 1998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으로 개관하였고, 과거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고, 독립운동가와 민주화운동가의 자유와 평화를 향한 신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장소로 운영된다. 전시관(구 보안과 청사), 중앙사, 옥사, 사형장, 시구문, 격벽장 등의 전시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시관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과 광복 이후의 주요 민주화 운동,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자료가 존재한다. 옥사에서는 당시 투옥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보여주고, 일부 옥사들은 과거 투옥되었던 독립운동가들과 백기완, 이규상 등의 민주화운동가들을 소개하는데 사용된다.

정기영 지금 누리는 자유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 땀, 노력 아래 이루어진



서대문 형무소 옥사 앞 태극기에서 찍은 사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독립, 민주화운동만 해도 충분히 고통스럽고 힘든 역사인데, 독립 이후에도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룩하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점이 슬펐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방송을 통해 본 적이 있었는데 항상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로 방송이 이루어져 이번에 실제 들어가기 전까지 조금 겁이 났었다. 하지만 들어가 보니 이곳에서 그런 참혹한 일이 행해졌다고 믿기 힘들 만큼 평화로워 보여서 더 참혹하게 느껴졌다. 이기적인 것은 나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본인만을 위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유현정 고문 현장을 매우 사실적으로 재현했고, 옥사가 보존이 잘 되어 있어서 그 당시 투옥된 사람들의 어려움을 관람 내내 느낄 수 있어 비참하였다. 과연 내가 그 당시 살았다면 투옥될 것을 감수하고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었고, 그 당시의 운동가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다만 전시관의 설명이 한국어로 작성된 설명의 경우 자세하고, 더 풍부한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영어로 작성된 설명의 경우 너무 요약

되어 있어 아쉬운 마음이 느껴졌다.

김채림 직접 들어가 보니 격벽장이 너무 작았다. 물론 소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환경이 너무 열악해 과연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또한, 옥사가 너무 작고, 화장실도 따로 없고, 식사량도 부족했다는 것들을 보며 관람 내내 너무 슬펐다. 만약 그 시절에 살았다면 독립운동가들처럼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다.

■ 부평공원- 평화의 소녀상, 강제 징용 노동자상

부평공원의 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전쟁 반대와 평화 수호의 의미를 담고 있다. 강제 징용 노동자상의 경우 일제강점기 시절 부평공원은 일본 육군에 의해 건설된 남한 최대 규모의 병기창으로 사용되었던 조병창이었다. 조병창을 중심으로 자행된 징용과 인권 유린, 노동착취 그리고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서는 해방을 주제로 삼아 만들어졌다.

정기영 부평공원은 집과 가까운 장소인데 이런 동상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평화의 소녀상이나 강제징용 노동자상과 같이 일제강점기에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한 동상이 생각보다 곳곳에 있다고 느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동상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의 아픈 역사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다행스럽게 느껴졌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역사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유현정 공원 부지가 과거 병기창에 사용되었는지 전혀 몰랐다. 방문 당시 공원에는 평화롭게 운동하고, 산책하고, 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얼마나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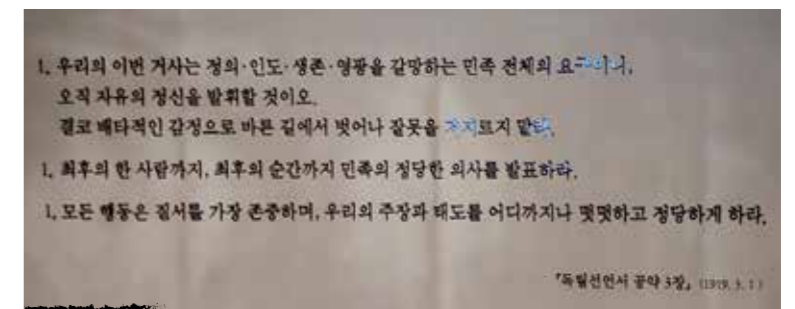
부평공원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노동자상

사람들이 공원의 동상을 보고, 이해했는지 궁금해졌다. 더 많이 기억해야 할 과거를 알리고, 평화롭고, 인권이 보장되는 현재를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우리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분야가 있다면 받은 만큼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채림 부평구에 살지만 부평공원에 이런 동상이 있는지 몰랐었다. 그 점을 반성하였고, 앞으로는 더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동상들이 역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동시에 상당히 인상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2일차

■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의 목적을 나타낸 독립선언서

독립기념관은 자주와 독립의 정신으로 지켜온 우리 민족의 역사, 민족의 독립, 자유, 평화에 대해 전시를 한다. 전시관은 총 7개로 나누어져 있다. 1전시관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인 1860년까지 민족사에 대해 전시되어 있다. 2전시관은 근대적인 자주독립 국가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좌절된 후 이어진 일제의 식민 지배 실상과 그 속에서 계속된 민족의 독립운동을 전시하였다 3전시관은 3·1 운동과 대중투쟁에 참여했던 민중의 모습을 전시하였다. 4전시관은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지향한 독립운동을 뜻에 대해 전시하였다. 5전시관은 국내외 각지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에 대하여 전시하였다. 6전시관은 관람 당시 공사로 인하여 전시를 하지 않았다. 7전시관은 특별기획전시실로 관람 당시에는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광복군과 OSS의 군사 합작”, “미군으로 참전한 미주 한인들”과 같은 전시를 진행하였다. 특히 독립기념관의 4전시관은 독립운동의 뜻을 주제로 전시를 하였는데 독립운동은 단지 나라의 해방뿐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 정의, 평화를 지향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독립운동은 현재의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정가영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되기까지 우리나라는 긴 역사가 있었고, 여러 왕조, 국가를 거쳐왔다. 독립기념관은 우리나라의 자주성과 독립에 대한 것을 일제강점기 시점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 고조선 건국 이전부터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전체적인 우리의 민족성, 자주성 등을 우리의 기나긴 역사에서 볼 수 있도록 전시관을 운영하였다. 또한, 외부에 수많은 태극기가 있던 것 또한 인상적이었다.

유현정 전시관이 생각보다 매우 넓었고, 잘 만들어져 있어서 놀라웠다. 방문하기 전까지는 이름이 독립기념관인 만큼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일 줄 알았는데, 선사시대부터 전반적인 한반도의 역사를 소개하였다. 또한, 눈으로만 관람하는게 아니라 직접 만져보고, 사진을 찍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어린아이들과 함께 와도 좋을 것 같았고, 민족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

김채림 가장 처음 느낀 것은 규모가 매우 컸다. 또한 입장권을 받아도 될 만큼 시설이 매우 좋았고, 전시도 다양했으며, 체험장도 존재하였다. 6전시관은 관람일 당시 공사중이라 관람을 하지 못했는데 너무나 아쉬웠다. 다음에 또 방문하고 싶다.

■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기념관

공원에는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인물들의 흉상, 당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한 것을 기리기 위한 여성 기념비, 달구벌대중, 향토 서예가(이육사, 박목월, 조지훈, 이호우, 운동주)들의 시비와 대형 영상시설, 명언비가 존재한다. 기념관은 경우 국채보상운동의 발생 배경, 운동의 전개, 결과, 취지문, 역사적 인물, 국채보상운동으로부터 파생된 IMF 경제난 시절 금 모으기 운동,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와 같은 내용들을 설명한다. 기념관 내부는 전시물 관람뿐 아니라 이해하기 쉽도록 모형과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을 만들어 놓아서 이해하기 쉽다.

정가영 기념관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국채보상운동에 대해 상세하게 알 수 있었다. 국채보상운동을 했다는 것은 교과서에서 여러 번 봤기에 알고 있었지만 그 발상지가 대구인 것을 몰라서 새로웠다. 또한 국채보상공원내에 국채보상운동 여성기념비가 있었는데, 본인의 성별 또한 여성이기 때문에 가부장제의 영향으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적던 시절에 국가를 되찾기 위해 힘을 합친 여성들의 노력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나라를 위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의 국채보상운동 설명 팸플릿

하는 마음에 성별, 나이는 상관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유현정 공원에는 국채보상운동을 이끌었던 두 사람의 흉상과 설명이 존재했고, 여성기념비외에 공원 내부에서는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설명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기념관도 큰 기대 없이 들어갔는데,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당시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것인지 잘 설명이 되어있었다. 글뿐만 아니라 다큐, 애니메이션, 모형과 같은 시각 자료들로 잘 설명되어 있었고, 사진을 찍는 등의 체험할 것도 많아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었다. 또한, 국채보상운동에 대해 설명을 보고 운동 방식이 굉장히 세련되었다고 느껴졌다. 오프라인 시위와 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돈을 보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뿐 아니라 직접 해결까지 하는 것을 통해 굉장히 자주적이고, 건강한 방식의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김채림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는 사실과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되었다.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에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자료들을 전시해둔다고 하였다. 현재는 공사 중이지만 공사가 끝난다면 다음에 이 팀원들과 함께 같이 가고 싶다.

3일차

■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박물관

대구에서 일제강점기의 모습을 가장 많이 유지하고 있는 거리 중 하나인 서문로에 위치하여있다. 건물은 일본식 2층 목조 건물을 재건축한 것으로 식민지 시대의 흔적을 직시해 역사적 교훈을 얻고, 기억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문제 해결을 통해 평화와 여성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역사관이다. 총 2층으로 되어있는데 1층의 경우 입장권 구매와 문의가 가능한 안내 공간으로 맞이방과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생존자들의 기억,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사를 볼 수 있는 전시실1, 영상실, 재건축 당시 발굴된 지하 병커, 안뜰이 존재한다. 2층을 올라가는 계단의 경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순악, 고 심달연의 원예 압화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2층에는 대구와 경북 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진과 이야기,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 교육관, 평화와 여성인권에 대한 기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입구

획 전시가 열리는 전시실2, 대구, 경북 지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수장고가 존재한다.

정가영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은 1일차에 수요시위를 갔다 왔기 때문에 더더욱 생생하게 다가왔다. 전쟁은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것들도 앗아가고, 그것이 특히 식민지처럼 힘없는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더욱더 가혹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느꼈다. 전시관이 약간 협소해서 아쉬웠지만 위안부 피해자로 희생된 분들의 증언과 기록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독립된 지 77주년이나 되었지만 아직까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하였다. 사과는 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강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사과이다. 자신의 잘못에 사과할 줄 모르는, 고개 숙일 줄 모르는 존재는 힘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유현정 총 2층으로 되어있었는데 1층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영상과 과거 위안부에 대한 인식, 국가의 대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영상 자료가 있었다. 보는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았고,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주변의 인식이나 편견들이 더 심해 현재보다 증언하기 힘들었을 텐데, 용기를 내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상이 이해하기 쉽고, 마음에 와닿고, 정보가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데 지루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관람을 추천하고 싶었다.

김채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 사진, 영상들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다. 1일차에 수요시위에 다녀와서 더 많이 마음에 와닿았던 거 같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 근대 대구 역사박물관

대구의 근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성된 박물관으로 1932년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으로 건립되었고, 1954년부터 한국산업은행 대구지점으로 운영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총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은 대구의 근대화에 대한 내용(예술, 대구에서 발생한 운동, 교육, 물건, 도시의 변화,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은 기획전시실로 방문 당시는 대구의 능금에 관해 전시하고 있었다.

정가영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희움일본군 위안부역사관과 가까워서 방문하게 되었다. 이 곳에서도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었고, 근대로 나아가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본



대구 근대 역사박물관 입구

인은 인천에 거주하기 때문에 수도권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보통 잘 모르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일이더라도 정확한 지역을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대구에서 이루어진 민주화운동과 대구의 근대화 과정을 볼 수 있어서 대구라는 지역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유현정 역사관에서 국채보상운동을 비중 있게 다룬 것을 보고,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채림 근대로 나아가는 대구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었다. 대구에 대해 알아가면서 애정이 생겼다. 다음에 또 대구에 방문하고 싶다.

■ 서상돈 고택

국채보상운동가인 서상돈은 천주교 순교자 집안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해 부자가 된 대구 출신의 민족자산가로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던 시절 천주교 활동과 자선활동에 전념하였다. 나라가 일본에 진 빚 "1,300만 원"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인식하여 국채보상운동을 발의하였다. 또한, 담배를 끊고, 그 돈으로 국채를 갚자는 의미의 단연회를 설립하였다.

정가영 원래 계획에 있던 것이 아니었으나 숙소와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방문하게 되었다. 서상돈 운동가는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인물 중 한 사람인 만큼 2일차에 갔던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당시

의 운동가가 어떠한 곳에서 생활하셨는지 느낄 수 있어 좋았다.

유현정 고택에 가족사진이 전시되어 있었다. 가족들이 입을 옷은 남자들은 정장에 여자들은 한 복을 입고 있었는데, 사진의 해상도가 좋지 않아 원단을 알 수는 없지만, 의상이 화려하지 않았고, 장신구를 착용하지도 않았다. 자수성가하여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으로 자신은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국채보상운동을 일으키며 검소하게 살고, 기부를 하여서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채림 국채보상운동은 전국적인 운동을 넘어서 해외의 한인들에게까지 확산된 운동이다. 전 국민을 단결시킨 사회운동으로 정말 멋지고 대단한 것 같다.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정신'을 배우고 마음에 새겨야겠다.



서상돈 고택에서 찍은 서상돈 운동가와 그의 가족사진

탐방 후

탐방을 한 후, 탐방과 관련된 방문지 별 인증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고, 방문지 답사기를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또한, 마침 개봉한 위안부 피해자 박순이 할머니에 대해 다룬 코코순이 영화를,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여전히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팀원들과 함께 코코순이를 관람하였다.

방문지 별 인증 사진

정가영 방문인증 ▶
(<https://www.instagram.com/p/CgzMxPVJSAL/?igshid=YzA2ZDJiZGQ=>)



유현정 방문 인증 ▶
(<https://www.instagram.com/p/CgzlKeqvYEj/?igshid=YzA2ZDJiZGQ=>)



김채림 방문인증 ▶
(<https://www.instagram.com/p/CgzDFcVrgvD/?igshid=YzA2ZDJiZGQ=>)



방문지 답사기



[2022]인천 민주주의 현장 탐방 0일차
2022 민주탐방



[2022]인천 민주주의 현장 탐방 1일차
2022 민주탐방



[2022]인천 민주주의 현장 탐방 2일차
2022 민주탐방



[2022]인천 민주주의 현장 탐방 3일차
2022 민주탐방

▲ 방문지 답사기 주소
(<https://m.blog.naver.com/215rkdud>)

탐방 후 활동(코코순이 관람)

영화 제목인 코코순이는 미국 전시 정보국 49번 심문 보고서에 나온 20명의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 중 유일하게 행적을 찾을 수 있던 박순이 할머니의 행적과 49번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그 파장은 어떤지에 대해 다룬 영화다. 박순이 할머니의 박을 일본어 발음으로 바꾸면 '보쿠라는 소리가 나는데 이를 잘 못 들어 코코로 기입된 것이다. 박순이 할머니는 제작진이 행적을 조사하기 전 돌아가셨고, 그 가족들은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생전에 성폭행 피해를 드러내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마음에 삭히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9번 보고서의 작성자는 일본계 미국인이었다. 당시 보고서를 작



코코순이 관람 장면

성한 사람은 이미 죽어서 인터뷰를 할 수는 없었지만 보고서를 작성한 팀의 팀원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어를 잘 하지 못했으며 당시 통역이 있냐고 묻자 대답할 수 없다고 하다가 포주였던 파파상, 마마상이 통역을 했음을 인정했다. 과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통역했을지, 주관적인 의견들이 담겨있던 49번 보고서가 사실만을 담고 있는지 의문이다. 문제는 이를 토대로 유튜버 활동을 하는 토니 마라노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일본에서 수요가 많다는 점이다. 영화는 박순이 할머니의 행적을 보여주며 끝이 났다.

정가영 박순이 할머니의 후손들이 할머니의 피해 사실을 모르다가 제작진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한 피해가 알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성범죄의 가장 잔인한 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피해를 당한 사실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언제 그것이 알려질지 몰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한다니, 내가 피해자였다면 무척 무섭고 억울했을 것 같다. 박순이 할머니가 이미 타계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동의가 아닌 그분의 후손들의 동의를 얻어서 촬영한 것 같았다. 다큐멘터리가 왜곡된 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의 취재를 한 것이지만 박순이 할머니께는 죄송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박순이 할머니처럼 알려지지 않은 다른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더 있을 것이다. 평생을 고통스럽게 사셨을 분들도 무척 많이 계실 것이고. 그러니 이 문제가 잊히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유현정 영화를 보며 역사를 왜곡시키고 그런 인식을 퍼뜨리는 것은 일부 인원이면 된다는 생각을 했다. 위안부 피해자가 중요한 일이 아니기에 일본계 미국인에게 일본이 저지른 일의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시킨 미군과 개인적인 사감을 많이 넣어 작성한 보고서, 그런 보고서를 보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유튜버, 일본 기업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학교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램지어 교수. 이들이 과연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가까운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든다. 자신의 모든 언행에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왜곡된 정보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일본과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채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에게 "코코순이 영화 (다큐멘터리 형식)"로 모두에게 알리는 방식은 할머니 입장으로 보면 너무 가혹하고, 잔인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 일본계 미국인의 조작된 자료를 믿고, 위안부 시위 반대와 일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다루어졌는데,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역사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의 중요성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관심 노력을 해야 함을 깨달았다.

최종소감

정가영 여행 테마에서 소개했듯이 우리나라가 독립한지 77주년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다. 또한 얼마 전에는 일본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되어 노역을 한 피해자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77년 전 화폐가치를 그대로 적용한 99엔을 지급했다는 뉴스를 봤다. 다른 사람의 자주권을 침해해 놓고 반성 없고, 어떻게든 본인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분노하게 한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한다.

누구나 그렇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잊히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탐방 전에는 민주화 운동하면 흔히 알고 있는 6월 항쟁이나 4·19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이 주로 떠올랐고,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이 일부 겹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둘의 차이를 알고, 자신의 신념을 향해 노력했던 여러 민주화운동가, 민주화운동에 대해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절대 쉽게 이룩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끊임없이 배우고 잊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이번 탐방을 통해 역사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

유현정 이 여행을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일제강점기에도 민주화운동이 있는지도 몰랐고,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알았을 뿐 정이나 종목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민주화 운동이 인권을 위한 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일제강점기에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민주화운동하면 6월 항쟁, 80년대 운동들만 주목받는 것에 안타까웠고, 독립운동과 함께 묶여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일제강점기의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여행하며 좀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했다.

이번 여행은 일제강점기 시대 일어난 민주화운동과 일제강점기 때의 피해를 대상으로 일어난 민주화운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때의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과와 배상을 위한 수요시위에 참여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희움 위안부 역사관에 가서 더 자세히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알 수 있었고, 현재 공원에 존재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과 소녀상을 통해 얼마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는데 관심이 적었는지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일제강점기 때의 민주화운동을 알기 위해 독립기념관에서 어떤 운동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고, 국채보상운동공원과 기념관에서 민주화운동들 중 국채보상운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한국사를 공부할 때 배우기는 했지만, 많이 잊어버렸고, 그 당시에는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민주화 운동이었고, 당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서대문형무소를 통해 과거 일제강점기 때의 독립운동가와 민주화운동가들이 겪은 고난을 볼 수 있었고, 해방 후 민주화운동가가 투옥

되었던 장소를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이 거저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그 외의 계획에는 없던 지역들을 가서 국채보상운동과 일제강점기 어려웠던 시점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알수록 현대와 과거의 괴리감을 크게 느꼈다. 그 당시의 어려운 점들을 감수하고 운동을 해주었던 독립,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고, 받은 것을 베풀어야겠다고 결심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김채림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시절, 알면 알수록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친 수많은 애국지사의 희생에 대해 가슴이 너무 아프다. 또한, 일제강점기 침해된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일어난 여러 민주화운동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겠다.

1992년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수요시위는 1555차를 맞이하였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에 슬픈 마음이 들었다.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 외면하며 실상을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이 보이고, 역사 왜곡을 하는 모습에 정말 분노가 일어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를 기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국채보상운동 때와 같이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

이번 탐방을 통해 자주와 독립의 정신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고, 국가의 고난 극복사와 발전사를 경험하고 배우며 역사의 중요성, 나라의 평화와 개인의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봄봄팀' 정말 고생 많았고, 정말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2022 인천 청년 민주주의 현장 탐방

민주야 여행가자!

탐방 보고 자료집

발행일 2022. 11. 25.

발행처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주소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로78 (주안동 170-8) 미추홀구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402호

전화 032)862-5353 팩스 032)862-5352

디자인 도서출판 다인아트

※ 자료집에 있는 자료나 콘텐츠의 무단 도용, 복제, 배포를 금하며,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